東大新聞

發行人 李智冠
編輯人 李璜雨
印刷人 李揆行
主幹 林英正
編輯局長 申寬浩
編輯長 盧建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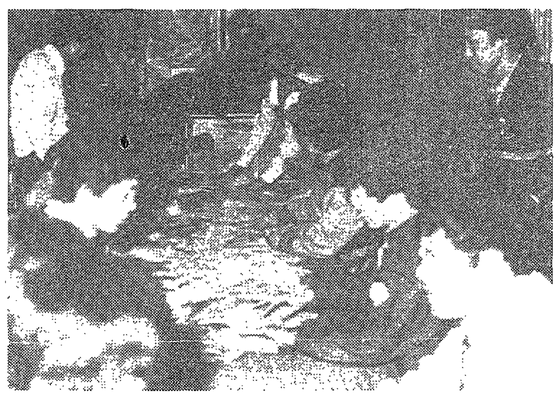
發行所
東國大學校
東大新聞社
서울캠퍼스
우편번호 100—715
서울시 中區筆洞3街26
電話交換 ☎8131~9
本社直通 ☎8577
경주캠퍼스
우편번호 780—350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전화 경주 2—0131~6
每週 火曜日 發行

종학正·副회장에 崔재성·李호영군

투표율 52% 1천3백여표차 압승 거둬

오는 8일 출범식 가져

女總회장에 신미숙양 당선


◇20代 총학선거의 개표가 지난달31일 오전3시경부터 다향관 교수식당에서 진행됐다.

◇崔총학생회장

◇李부총학생회장

◇신총여학생회장

총학생회 제20대 총학생회장에 기호1번 정·부회장 최재성(물교4)이호영(국문4)조가 당선, 오는8일 출범식을 갖게 된다.

〈관련기사 7면〉

지난해 11월 개정된 학생회칙에 따라 처음 실시된 이번 봄선거에는 총유권자 9천7백81명중 5천1백18명이 투표, 52·3%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기호1번 최재성·이호영조가 3천1백11표(지지율60·8%)를 얻어 기호2번 권용석·최세일조가 1천8백48표(36%)를 각각 얻어 1천2백68표의 큰차이로 기호1번의 당선이 확정되었다.

각 투표소별 개표결과를 보면 기호1번이 제1·2·3투표구에서 모두 압승을 거둔 반면, 기호2번은 제4투표구(야간강좌)에서만 우위를 보였다.

또 이번 선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곳은 제4투표구로 64·3%를 기록한데 반해 재선거유권자일등이 일었던 제3투표구(공과대·사범대)는 32·4%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신임총학생회장 최재성씨는 당선확정후 당선인사를 통해 『통일단결의 원칙과 일만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 대변하는 힘있는 총학생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표는 지난달 30일 다향관 교수식당에서 있었는데, 기호2번측이 29일 제1투표구에서 미술학과의 미투표자 명단 공개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 특정후보의 선거활동 가능성과 중선위의 책임을 돌려 문제된 투표함 전체의 무효처리를 주장하는등 논란으로 개표가 늦어지기도 했다.

◇吳明체신부장관

1학기 장학금 내역발표

학생처 4천4백명에 13억원지급

학생처는 지난달31일 '88년도 1학기장학금 지급현황을 집계, 발표하였다.

이발표에 의하면 이번학기 장학금은 총13억3천9백88만4천2백50원으로 수혜자는 총4천4백26명이 되고있는데 이는 전체등록학생의 39·5%(교내:34·68%, 교외:4·8%)에 해당하며 1인당 지급액은 평균 30만2천7백30원씩으로 나타났다.

장학금의 종류를 교내·외로 구분해보면 교내장학금은 총3천8백87명(경우포함)에 11억4천7백34만3천8백50원, 교외장학금은 총5백39명(경우포함)에 1억9천2백54만4백원이 지급되었다.

장학금 지급현황을 세분해보면 교내장학금의 경우, 입시우수장학금이 3백12명에게 1억5천2백19만4백원, 대학수석을 포함한 성적우수장학금이 1천30명에게 2억7천3백만2천3백원 지급되었고, 불교장학금은 1백36명에게 5천1백49만1천6백원, 총장및복지장학금이 6백36명에 1억3천7백89만3천5백50원, 고시장학금 3천7백25만9천7백50원, 체육장학금 9천3백33만6천9백원, 보훈장학금 8천6만6천6백50원, 교육원및 교직원자녀장학금이 5백32명에 8천1백19만8천5백원, 근로 가사 및 대여장학금이 7백26명에 2억3천1백18만원 해외 및 외국인장학금, 6백54만2천6백원 농촌후수장학금 3백23만2백원등이 각각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교외장학금이 1천1백5만7천원, 공공장학금 9천9백64만3천원, 장학법인장학금 5천2백52만6천1백원, 개인자격으로주는 장학금이 3백60만원 그리고 기타장학금이 2천5백71만4천3백원으로 나타났다.

학사경고자 총3백31명

지난학기 2학년이 가장많아

87년도제2학기 성적불량으로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총3백31명인것으로 집계, 발표 되었다.

교부처에 의하면 이번학기 경고자는 지난학기 2학년이 가장많아 49명 늘어난 것으로 단대별로는 야간강좌가 69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법과대는 8명으로 가장적었다.

또 공과대가 53명, 문과대 47명, 이과대 32명, 사범대 31명, 경상대 25명, 불교대 20명, 농과대 19명, 체신부장관초청 특강 「정보사회론」 주제로

정보산업대학원은 吳明(공학박사) 체신부장관을 초청, 지난 4일 오후 6시 30분 동국관(L310)에서 「정보사회론」 특강을 가졌다.

식목일 기념식수

4일 본관옆에서

「식목일 기념식수」가 지난 4일 오전11시 李智冠총장, 黃彰經이사장을 비롯한 학·실·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옆 공터에서 있었다.

포스트동정

◇林虎一(독어독문학과)=지난달22일 학술회의 참석차 인도로 출국.

◇金在功(전자공학과)=오는18일 영국 Lough borough대학에 연구논문 토의차 출국.

◇朴庚圭(경영학과)=지난달22일 학술회의 참석차 인도로 출국.

◇宋鍚球(철학과)=지난 2월12일 열린 한국동양철학과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피선.

◇金逸(문과대·사학2)
◇金敬燮(이과대·통계2)
◇池東哲(이부대·전산2)
〈4월4일자〉

本社辭令

任 記者

◇알 림

1학기 중간고사 관계로 1주간 휴간하고 991호는 오는19일에 발행됩니다.

28년전 숭고한뜻 가슴에 안고

4·19기념 등산대회 오는16일 북한산 일원서

「제19회 4·19기념 동국인 등산대회」가 오는 16일 오전9시30분 4·19기념탑(수유리소재)을 참배한뒤 북한산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 대회는 4·19의거의 참뜻을 기리고 전동국인의 체력향상 및 친목도모를 위해, 지난 70년부터 매년4월19일을 전후해 열려오고 있는데, 참가범위는 교직원, 재학생, 대학원생, 교교동문 동문들로 구성된 팀(리더 1명·대원3명)으로 하고 있다.

금년 등반코스는 4·19기념탑→대동문→태고사터(군창지)→용암문→도선사에 이르는 구간으로 점심식사는 오후12시30분 태고사터에서 있으며, 또 오후4시 55분에는 도선사 주차장에서 잠기자랑및 시상식이, 6시에는 폐회식을 가진후 해산한다.

이번 대회의 참가신청은 오는 11일~15일 오전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다향관앞 산악부 캠프에서 재학생부, 써클부, 교직원부, 종립학원부, 동문부등 부별로 접수를 받으며, 팀리더회의는 오는 15일 오후4시 본관 교수세미나실에서 갖는다.

한편 이번 대회는 금년 등반대회 논란이 되어오던 4·19기념탑 참배가 공식화된 첫 등반대회이기도 한다.

방일성君 공판 연기

慶州 법원서 연좌시위등 벌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구속된 경주캠퍼스 총부학생회장 방일성(경제4)군의 재판이 지난4일 오전10시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총학생회장 강진수(법4)군을 비롯한 70여명의 학생이 방청한 가운데열렸다.

지난1월8일 구속된 방군은 구속80여일만에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변론을 담당한 박정규변호사가 『피고의 가족이나 일반인 보다 기관원들이 과반수를메운채 재판을 진행한 예는 없으니 기관원들을 퇴장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을 할수없다』고 퇴장하는 바람에 방금 역시 『변호사의 변론을 받는 가운데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하여 한때 법정이 소란해졌다.

이에 담당판사는 오는18일 오전10시에 다시 재판을 열것을 선언함으로써 폐정되었는데 방청학생들은 노태와 구호등을 외치며 법원내에서 연좌시위를 시작하여 학교까지 「우리는 성이와 함께 공부하고 싶다」고 쓰여진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가두행진을 벌인 뒤, 녹야원에서 간단한 집회를 가진후 해산했다.

東國文學人의 밤

文學賞 시상식도

「제2회 東國文學賞시상식및 東國文學人의 밤」행사가 동국문학인회(회장=李炯基)와 동국문학회 공동주최로 지난 2일 오후4시 동문과 재학생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이번 문학상 受賞者인 金文洙(소설가) 同門은 기념강연을통해 『왜곡된 허위속에서 진실을 찾는 것이 작가의 의무』라고 전제하고는 『작품을 쓰는 자체를 기쁨으로 알고 집필하는 것이 자기완성의 길』임을 밝혔다.

社 告

제6회 학생논문 현상모집

28년전 독재에 항거하여 正義의 함성으로 여울졌던 그날의 의지는 오늘에도 더욱 빛을 발하고 있읍니다. 올해로 창간 38주년을 맞아 本社에서는 이러한 4·19의 참뜻을 되새김하고 오늘에 移植하고자 본지창간 38주년기념및 4·19 28주년 기념 「학생논문상」을 제정, 원고를 모집하고 있읍니다.

—오는 13일 원고마감—

◇응모자격…본교생에 한함 (대학원생포함)
◇분 량…2백자원고지 50매
◇마 감…4월13일 오후 5時限
◇발 표…4월19일 본지창간기념호
◇접 수…본사 편집부
◇상 금…당선작1편 (상장및부상 20만원)
가작2편 (상장및부상15만원)

◇주 제
1. 4·19가 사회변혁운동에 끼친영향
2. 민중불교의 再考
3 북방외교와 통일정책
4. 지방자치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5. 수입개방압력과 그 대응책
6. 전환기에 있어서의 민중문학의 역할

※위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제목을 정하여 논문을 써주시고 제출시에는 겉봉에 「논문현상모집원고」라고 朱書하여주십시오.

<심사위원은 추후발표>

東大新聞社

보리수

부처는 누구인가

다야는 일이지만 백장회해(百丈懷海, AD720~814)는그의 문하 황벽희운(黃檗希運)과 더불어 중국 선문의 호랑이로 불리운다. 「인과(因果)에 매이지 않는다」기 보다는 「인과에 매이지 않는것이 因果不昧」으로 유명한 들여우의 법문은 선문에 회자 되기도 하지만, 제자 황벽에게 빨을 얻어 맞고 태연하게 「나는 네가 수염만 빨간 줄 알았더니, 정말넉는빨간 수염을단오랑캐로구나!」한 말은 더욱 유명하다. 冥經慧(禪學의 黃金時代)에 따르면 수염은 현상이욕, 빨간 수염을 단 오랑캐는 바로 그 사람, 즉 하나의 인격적 주체를 뜻한다.

백장이 지금까지 본 황벽의 빨간 수염은 현상하적 영역이었는데, 자기를 때린 이 빨간 수염의 젊은 주인공은 이미 현상적 자기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그래서 따귀를 맞고도 기뻐하며 제자에게 선지(禪旨)를 깨우치고 있다.

이러한 백장에게 어느날 젊은 스님이 찾아 왔다. 그리곤 다짜고짜 「부처는 누구입니까?」이렇게 묻는 것이다.

이에 백장은 일언지하여 「이놈 넌는 누구냐?」고 되묻는다. 그렇다. 나는 누구인가. 그대가 그대 자신일 때, 우리(그대)는 모순도 장애도 없는 세계를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다.

부처(他)를 묶기 전에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면 소아(小我)의 편협한 집착에서 벗어 날수 있을 것이다.

孔子도 위지학(爲己之學)을 구분하여 말하고 있다. 위지학은 술(術)의 학이요 위지학은 자기 탐구의 학이다. 도덕학적 측면에서 말한다면 전자는 「좋음」을 추구하는 영역이고 후자는 「옳음」을 추구하는 체계라 할수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것은 합리주의다. 그러나 합리주의만 어찌 좋음과 옳음을 동일시하는 잘못된 관성을 가지고 있다.

요즈음 어느 전직 대통령의 친우가 「분수대로 살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회한어린 후회를 했다. 그저 나옳은 것만 찾기전에 「옳음」이 무엇인지 한번쯤 생각했어야 하는데. 앞서의 정권이 도덕성·정당성을 상실한 데는 「좋음」과 「옳음」의 균형을 상실한데도 근원이 있다하겠다. 불교는 인과의 두려움을 가르친다. 백장선사가 「이놈 넌는 누구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도 因果不昧, 그것외에 또 무엇이겠는가.

自性을 본다면 自由를 볼 것이기에!.

宋在雲

행정관리직 직원모집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근무지	응 모 자 격
일 반 직	서울·경주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한자
기 술 직 (실험실습기자재 전담요원)	〃	4년제 정규대학에서 화학계열 (화학·화학공학·고분자공학…) 학문을 전공한자로 각종연구소 경력 2년이상인 자나 분석기기 실무 1년 이상 경력자
사 서 직	경 주	4년제 정규대학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한자로서 사서자격증 소지자
전 산 직	〃	4년제 정규대학에서 전자계산학을 전공하고 정보처리기사 1급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1년 이상 실무 유경험자

※각학공히 1958년 5월 1일이후 출생한 자로서 병역을 필한자.

2. 모집인원 : 각직 약간명
3. 전형방법 : 필기시험(영어·논문), 면접, 기능시험(기술·사서·전산직)
4. 제출서류 : 가. 지원서(본교 소정양식)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다. 대학전학년 성적증명서
라. 자격증사본(해당자)
마. 경력증명서(〃)
바. 원호대상자 보훈증명서
5. 예비소집 : 1988년4월16일(토) 오전09시30분 본관교수세미나실
6. 시험일자 : 1988년4월16(토)오전10시
7. 시험장소 : 서울캠퍼스 고사장
8. 지원서교부및 접수기간 88년4월6일(수)~4월12(화)17시
9. 원서접수처 : 서울캠퍼스총무과 및 경주캠퍼스총무과 (우송된 서류는 접수치 않음)
10. 원서상단에 희망근무지를 주서로 표기할것.

전화문의 : 서울캠퍼스 267—8131~9
경주캠퍼스 2—0131~5

동국대학교

"애드·젠은 기업과 대학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애드·젠은 기업과 대학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기업에는 보다 효율적인 이익을, 대학에는 소중한 그들의 미래를 돕는 일에 보람을 삼고 있읍니다.

애드·젠은 전국의 대학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보다빠른 정보망으로 기업의 원활한 광고활동을 위해 일하는 대학신문 광고대행사입니다.

전국 대학신문 광고문의
TEL. 741-1661 741-16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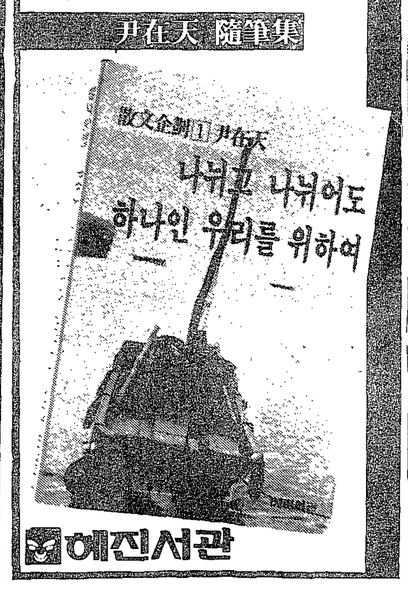
주식회사 애드·젠 ZEN ADVERTISING INC.

우리時代를 위한 散文企劃 1
尹在天隨筆集
혜진서관

나뉘고 나뉘어도 하나인 우리를 위하여

이 시대의 내면에 서린 끈끈한 정을 발굴, 인간이기를, 오직 인간이기를 추구하는 산문시인 윤재천 교수의 수필로 쓴 체험론

尹在天 隨筆集



혜진서관

혜진詩選集 29

인당수에 부는 바람

河吉男 詩集

서정의 농숙과 참신성을 지닌 有精卵의 詩篇들!

하길남에 있어서 詩란 바로 인연의 줄을 찾아가는 영혼의 자기구제의 방법일 것이다. 인당수 물의 효험이란 바로 그 죽음과 환생 그리고 눈멈과 눈뜸이란 영혼의 변증법이 아닐 것인가. —

값 2,500원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345-3호 ☎712-7398

혜진서관

金小葉詩集

발간 석 달만에 7판 발행

님을 그리는 승화된 사랑의 詩美學, 영혼으로 만나는 순정한 사랑의 갈구

〈영의 신랑이신 하나님과 육의 남편이신 장로 고양영재교수님께 첫 열매를 바칩니다.〉

맑은 감성과 유려한 가락, 깊고 그윽한 동양적 서정을 바탕으로 사별한 한 사람을 향해 띄우는 김 소엽 시인의 사랑 헌시.

유한한 사랑에서 영원성을 지향하며, 초월자에 대한 영적 그리움과 사랑으로 승화시킨 김 소엽의 시편들은 한편 한편이 밀도 짙은 시적 긴장감과 가슴을 찌르는 절실성을 동반한다.

그대는 별로 뜨고

2,000원 文學世界社 (764)2672.

社說

총학선거를 보고

첫 봄선거로 지난달 29·30일 양일간에 걸쳐 치뤄진 제20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선거가 약간의 잡음도 없지않았지만 대과없이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과정을 살펴봤을때 몇가지 아쉬움이 남는 것이었다.

첫째, 유세과정에서 내부이견으로 급기야 한 사람이 후보사태를 선언하여 파문을 일으킨점이다. 둘째는 이것이 비화되어 공과대에서는 선거 보이콧을 하겠다고 밝히는가하면 他단대에서도 반박성명을 낸는 등의 모습으로 많은 學우들의 지탄이 있었다.

셋째로는 선거의 참여도 부족을 들 수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앞서 지적한 두가지 사례가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며, 많은 학형들의 자세 또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다.

넷째, 중선위측의 실수에 따른 선거부정시비를 들 수 있다. 제1투표구에서 투표참가자수가 확인 가능한 선거인명부를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되어 처리문제를 놓고 한동안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는 어쨌든 중선위관계자들이 정확히 선거시행령도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업무를 봤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빚어낸 한판의 촌극이었다.

이와같이 이번 선거는 말도 많고 문제점도 많았다는 것이 솔직한 실정이다.

그만큼 제20대 총학생회의 어깨가 무겁다는 점이다.

이번에 당선된 총학대표들은 무엇보다 지난해 제19대 총학생의 취업률이 예년보다 저조함을 보이고있다.

그러나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취업 당사자인 졸업생 스스로의 그동안 노력과 상관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불철주야 땀흘려 각고한 전문분야에 대한 천착은 사회가 요구하는 수요에 언제나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있게 된다. 취업 당사자들의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예비적 노력은 따라서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재산이 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대학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이 보여주었던 무능총학이나, 또는 지나친 선전논리를 학우들에게 강요하는 총학의 모습에서 탈피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즉 이들은 노선상의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같은 소모전적인 마이크 쟁탈전을 지양하고, 또한 동악을 하나로 결집시키기위해 둘이 한組가 된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초의 정신에 따라 협조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추진해나가야 할것이다.

그래서 총학에 무관심한 상당수의 학생들과 함께하는 총학을 만들어야만 한다.

또한 올해는 곧 있게될 국회의원총선등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므로 총학은 사회민주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것이며 아울러 학내의 산적한 부조리를 일소하기위한 학내민주화사업과 학생복지의 향상을 위한 활동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대학교육이 대중교육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는 더욱 이같은 점의 확인이 의미가 실장함을 알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번 강조해야하는 것은 취업 당사자들의 노력 못지않게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조금의 소홀함도 없어야 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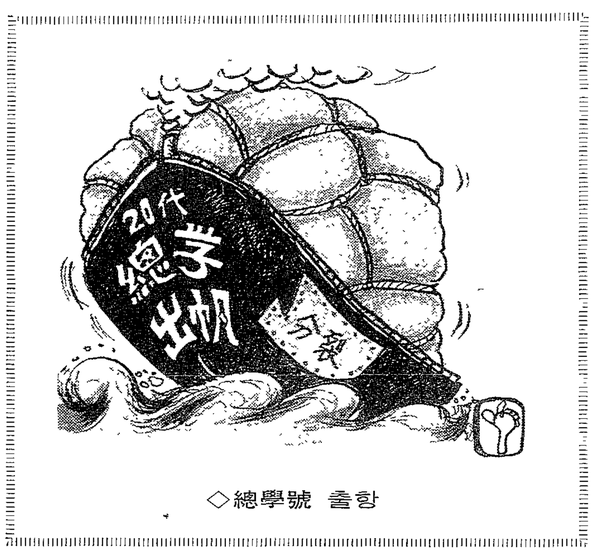
어차피 경쟁사회이며 취업당사자들은 그속에서 경쟁을 통해 승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당사자의 노력 못지않게 그것에 상응되는 여러장치들이 갖구되어야 할것이다. 그래서 학교는 기왕에 취업정보의 수집과 분류, 특강 그리고 동문기업인과의 간담회등을 통해 이것을 도모해왔다.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나를 다시 검증해야 할 것이고 가능하면 취업전담부서를 확장하여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함에 적극적이어야 할것이다. 학내외의 각분야의 전문요원을 두루 초빙하여 정기적인 상담에 응해주는 방법도 고려해볼만한 일이다. 단·중·장기 계획의 입안을 통한 쉴없는 계획적 노력의 축적도 필요할것이다. 취업과 교세의 문제도 밀접하게 연관함을 알아야 할것이고, 꾸준한 교세의 신장 노력과 홍보활동도 넓게는 취업문제와 맞물려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당국도 대학졸업생의 인력수급계획을 다시한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학을 수료한 전문인력의 많은 수가 사장된다면 그것은 대학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것임을 통절히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년에 대비해 취업률이 저조한 것을 귀감으로 취업당사자인 학생 그리고 학교, 정책당국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을 강조하고자한다.

추업대책 시급하다



◇總學號 출항

東國漫評

時事論壇

言論은 아직도 알아서 기고있다

—— 새마을중앙본부 비리사건과 言論의 태도

그 어느 추리소설보다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설혀서 진행되어온 새마을 事件이 드디어 3월31일全敬煥씨의 구속과 대검수사부의 중간수사 발표로, 지금까지의 1회탐색전이 끝나고 그라운드로 접어들었다.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내용은 公金횡령 등 6개 죄목에 해당하는 78억원이며, 그러나 검찰은『이번사건을 엄정하게 수사, 그 진상을철저히 규명하고, 범법행위가 발견되면 누구라도 엄벌한다는 발침』으로 외화유출과 全씨의 재산 해외도피 등을 계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검찰은 81년부터 6년간 교부받은 새마을성금 2백78억원

「AFKN」방송의 문제점 고찰

放送통한 文化 종속현상 날로 "심각"

세스·폭력등 프로그램 내용 문제점 많아

情報主權 자원의 전파관리정책 全面수정 요구돼

4만명미만의 주한미군과 그 가족을 위한 AFKN은 전국적으로 매일20시간정도씩 방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의 어떠한 심의도 거치지않는 등 治外法權상태에 놓여있다. 이에따라 전국민의 美國化현상이 가속화된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이에 本稿에서는 AFKN의 由來로부터 타국과의 비교등을 통해 情報주권이란 시각에서 살펴본다.

<편집자註>

Ⅰ、序論

「오늘날 국제사회에 있어서 정치적 주권과 함께 문화적 주권이 없는 국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국가로 볼 수 없다.」 새로운 국제정보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제3세계의 합일된 목소리는 이제 情報主權의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보유통의 불균형과 문화의 위기는 대체로 ①컴퓨니케이션 政策의 不在, ②매스미디어의 지나친 對美 의존도, ③컴퓨니케이션 관련 산업의 多國籍化 그리고, ④외국방송의 월경현상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한번도 올바른 컴퓨니케이션 정책이 일안되지 못하였다.

과거 복합적이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난 정책결정의 유형은 비합리적인 「쓰레기통 모델」이었다. 컴퓨니케이션에 관련된 정책 결정이 혼란된 상황 속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뜻이다.

예컨대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웃나라가 TV방송을 시작했으니까 우리도 시작해야 한다는 막연한 경쟁의식이나 아시안 게임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즉흥적으로 정보란 현대사회의 중심적 자원이기 때문에 물흐르듯이 자유롭게 유통돼서 국가간 상호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文化擴散論的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나 지나치게 실화된 一方的 흐름은 종국적으로 정치적·경제적·군사적제국주의를 미디어에 의한 문화제국주의로 발전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큰촉매 역할을 하는 국제적조직이 바로 다국적 기업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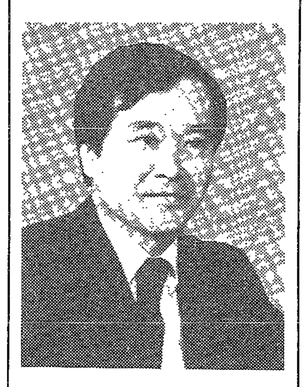
네째 정보주권의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방송의 월경현상, 외국 전파의 국내유입을 두어야할것이다.

放送전파의 越境현상(Spil over)

Ⅱ、AFKN의 由來와 實像

올해로서 AFKN은 38주년을 맞는다. 주한 미군방송인 AFKN의 역사는 1950년10월4일 일요일 낮 12시41분 옛반도호텔앞에서 인천상륙작전때 이 땅에 들어온 라디오 중계차가 「AFRTS—서울」의 전파를 한국의 하늘에 쏟아놓음에서 시작된다.

전쟁이 끝난 1954년 AFKN은 서울에 상설 스튜디오를 짓고, 57년에는 TV방송국을 개국했다. 1956년 시월 국내 최초로 미국 RCA사와 합작한 민영TV국 HLKZ—TV가 개국했으나 59년2월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실되고 만다.



金寓龍
<외대교수·방송학>

그 뒤 5·16군사혁명 정권은 61년12월 KBS T·V을 시작했으므로 57년 9월에 개국한 AFKN—TV는 우리 국영TV보다 4년여나 앞선 것이었다. 1959년에는 TV스튜디오를 개설하였고 1964년에는 라디오FM방송을 시작했으며 71년에는 FM스테레오방송을 개시하였다. 이어 77년에는 컬러TV를 시작했고 마침내 1983년10월4일부터는 미국방성은 위성중계 계획인 SATNET를 개통시킴으로 미국 본토의 3대주요 TV네트워크의 프로그램을 직접 한국의 안방에 전할수 있게되었다.

몇가지 주요 이벤트 중심으로 AFKN의 역사를 일별해 보아도 그것이 기술이나 편성, 보도에 있어서 한국의 방송을 어떻게 先導해 오면서 엄청난 영향을 주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AFKN방송은 미 국방성 산하에 있는 해외주둔 美軍방송의 총괄기구인 AFRTS에 속해 있다. AFRTS시스템은 전세계에 걸쳐서 26개국과 8개 미국내 지역을 포함해서 총 4백여개에 이르는 라디오·TV방송국으로 구성돼 있다. TV의 경우에는 15개국에 걸쳐 약 1백개의 방송국이 활동하고 있다.

AFRTS의 기본적 일부는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직속기구인 군사정보처(LAF)의 기본적 일부 바로 그것이다. 곧 미국정부의 가치와 국가적 유산과 전통을 이해시키며, 미국의 성립기반이 되고 자유주의 제도에 저해가 되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자유를 이해시키며, 공산주의의 위협을 충분히 인식시키며 끝으로 군인 개개인의 책임과 목적을 뚜렷이 인식시키는데 방송이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AFKN은 TV의경우 하루 19시간씩 (토요일은 20시간이념는다) AM과 FM은 종일 방송을 하고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AFKN에대한 사회 문화적 관심이 증대된것은 1983년 10월4일부터 위성 직접중계에 의해서 미국 본토의 프로그램이 아무런 여과없이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부터이다. 패키지로 寒蟾되든가 녹화중계되던 종래 방식을 벗어나 미국 3대 메이저 네트워크의 주요 TV프로그램이 직접 우리가정에 선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은 「제인 폴린」와 아침을 함께하고 「자니 카슨」과 하루를 마무리하게 됐다. 곧 SATNET에 의해 한국은 미국과 동시에 미국의 주요 TV프로그램을 시청할수 있게 되었다.

미군방송의 DBS (직접위성 방송) 계획은 미국 국방성 라디오·TV업무국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합의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고있는 국제통신위성기구 INTELSAT에서 임차한 예비지구국 1회선을 3336만달러에 향후 5년간 사용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능해졌다. 문제는 AFKN이 주한 미군 4만명과 그가족을 위한 특수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일반TV와 똑같은 NTSC525주사선방식에 VHF체널을 이용하고 있기때문에 모든 국민을 잠재적 시청자로 삼고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한 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우리국민의 80%이상이 『가끔씩』이라도 AFKN T·V을 보고있어서 全國民의 美國化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AFKN의 국내방송과 동일한 방송방식과 20시간 안팎의 엄청난 방송의 시간이 우리사회 여러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나 우리 정부로서는 어떤 실의나 규제가 불가능하고 AFKN에 관한 한 속수무책으로 있다.

AFKN의 방송 존립근거가 되는 법률은 1966년 체결된 「한미행정협정」이다. 이 협정 제3조 2항 (나) 호에 의하면 「전자파 방사 장치용 라디오 주파수 또는 이에 유사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에 관한 모든 문제는 양정부의 지정 통신당국간의 약정에 따라 최대의 조정과 협력의 정신으로 신속히 계속 해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AFKN은 우리 정부의 아무런 법적 통제나 간섭없이 자유롭게 방송활동을 해왔고 우리로서는 설사 AFKN이 우리나라의 국가이익에 反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한국민의 민족적 자존을 해치는 뉴스보도를 내 보내도 전혀 규제 不能 不可였다.

Ⅲ、AFKN의 功過

미국의 군사방송시설 가운데서 TV서비스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선록, 오끼나와, 대만등 15개국에 걸쳐 1백여개가 미 본토의 방송과 연결돼 있으나 방송의 방식과 시설의 규모 면에 있어서 AFKN이 가장 독보적이다.

첫째 주한 AFKN은 미군사 방송의 총괄기구인 AFRTS산하의 여러 방송시설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중계국(Repeaters)에 의해서이긴 하나 전국적인 망을 형성하며 한반도 전역을 가시청권으로 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SATNET, 곧 직접위성방송 계획도 제일 먼저 착수된 곳이 한국이다. 미국 국내위성을 이용해서 알라스카와 파나마에 주둔한 미군이 DBS방송의 총괄기구인 AFRTS산하의 여러 방송시설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중계국(Repeaters)에 의해서이긴 하나 전국적인 망을 형성하며 한반도 전역을 가시청권으로 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SATNET, 곧 직접위성방송 계획도 제일 먼저 착수된 곳이 한국이다. 미국 국내위성을 이용해서 알라스카와 파나마에 주둔한 미군이 DBS방송을 시작한 것보다 낫겠지만 사실상 아무 것도 아니다. 도대체 「민감성」이 무엇이며 그것을 누가 판단한다는 말인가. 하나의 外交的 言辭에 지나지 않는다.

방송의 형태는 완전 개방주의를 채용했으면서 규제는 全無인 셈이다. 반면에 국내 TV방송에 대해서는 편성 규제는 말할것도 없고 외국 영화, 만화 그리고 국내 영화·만화에 대해서는 사전 「검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반 프로그램의 사후 평가에 있어선는 준국가 기관인 방송위원회가 징계나 시정을 강제적으로 「명령」할수 있게돼 있다. 자국민에게는 인색하고 엄격한 정부가 외국인에게는 너그럽고 관대하다. 관대한 것이 아니라 정보와 문화, 컴퓨니케이션의 차원에서 主權을 포기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간의 정보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때에 AFKN의 존재양식은 「군사망을 통한 미디어 帝國主義의 첨병」을 안방에 모셔다 놓은 꼴이 아닐 수 없다.

AFKN의 영향은 팝송의 보급으로부터 시작했다. 미군의 한국주둔과 함께 미군병사를 위한 AFKN라디오 방송이 개국되면서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팝송은 우리전통의 소리와 가락을 대치하게 되었다. 물론 미군방송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미국문화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우리 국민의 국제적 안목을 길러주고 비교적 객관적이고 공정한 뉴스를 접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영어학습에 도움을 주는가 하면 국내 연예부문이나 저널리즘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같다.

①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많은 사람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뉴욕이나 로스앤젤리스에서나 볼수있는 미국TV를 「아랫목에 누워서」 볼수있다. ②미국의 합리적인 가치—실용주의, 청교도정신, 자유와 민주주의—따위를 터득 할수있다.

③국내TV프로그램에 음양으로 자극을 주게돼 편성·보도·기술의 면에서 발전을 도모하게된다. ④세계 공통어인 영어를 공부하기에 안성마춤이다.

한편 부정적 측면으로는 ①미디어를 통한 문화침략이 종속현상을 실화시키게된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TV란 매체의 국제화에 따라 미국의 文化帝國主義로부터 자국의 독창적인 문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AFKN은 이와같은 정당한 노력에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시대적 역행이라고 보여진다. ②AFKN의 프로그램에는 섹스와 폭력이 난무하는 오락적·향락적·감각적·선정적·소비적·퇴폐적 요소가 적지 않다. 특히 활극이나 드라마의 주제에는 反戰, 마약, 유괴, 근친상간등 우리사회의 윤리의식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주제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우리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가치혼란을 일으켜서 문화적 正體性을 위협하고 있다. ③우리사회 엘리트 계층이 AFKN의 뉴스등을 많이보고있다. 자칫 메시지의 왜곡이나 오해로 인하여 정보의 올바른 흐름이나 여론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Ⅳ、結語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선진국이 후진국을, 중심국이 주변국을, 높은 곳에 있는 자가 낮은 곳에 있는 자를 수탈해 가는 행위를 제국주의라고 한다. 「갈퉁(Galtung)」에 의하면 제국주의는 ①정치적 제국주의 ②경제적 제국주의 ③군사적 제국주의 ④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제국주의 ⑤문화제국주의 ⑥사회 제국주의로 구별된다.

그러나 이것은 각기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면서 연계되어 일어난다.

역사적으로 제국주의의 형태는 변해왔으나 제국주의의 본질은 바뀌지 않고 있다. 과거의 제국주의는 군사적 「점령」에 의해서 중심국의 중심 그룹이 주변국의 중심그룹을 통치하였다. 이러한 초기의 현상을 帝國主義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두번째는 군사강점이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해서 중심국의 중심그룹이 주변국의 중심세력과 교류하는 형태로서 이를 新帝國主義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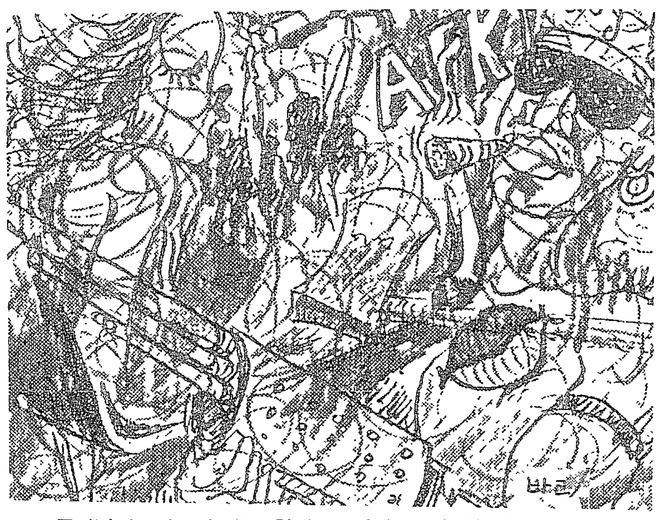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중심국의 핵심그룹과 주변국의 중심그룹 사이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교류하는 新帝國主義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 혹은 미디어 제국주의는 다시 ①영화·TV프로그램을 통한 제국주의 ②국내 미디어의 외국 소유 ③방송제도 도입에 따른 제국주의 ④문화제국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문화—미디어 제국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 또는 극복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新國際情報秩序이다. AFKN으로 인한 정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를이나 UHF채널로 전환돼야한다. 만약 그것도 어렵우면 일정지역만 커버되는 LPTV로 송출돼야 한다. 만약 형행대로 갈수 밖에 없다면 최소한 우리 당국사이에 편성조정 기구가 있어야 하고 국내절차법및 방송법의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AFKN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학국 수용자에 대한 미디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국내TV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일과 공정한 보도로 신뢰성을 회복하는 일도 AFKN의 악영향을 축소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것이다.

한국의 情報主權의 확립이란 점에서 AFKN에 대한 정책의 근본적 수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하겠다.



국가간의 정보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때에 AFKN의 존재양식은 「군사망을 통한 미디어帝國主義의 첨병」을 안방에 모셔다 놓은 꼴이다.

泰昌企業株式會社
TCE TAECHANG ENTERPRISE CO., LTD.

입을수록 자유롭고 활동적인
태창기업 캐쥬얼복지

유명메이커가 만들고 있는 캐쥬얼웨어의 80%가
태창기업 버펄로 원단입니다.
SS패션, 반도패션, 코오롱, 톰보이, 뱅뱅등 국내 유명메이커가 만들고 있는 캐쥬얼웨어와 봉제수출업체의 대부분이 저희 '버펄로' 원단을 사용하고 있읍니다. 세계적인 상표들과 어깨를 겨루는한국의 캐쥬얼웨어들이 굳이'버펄로' 원단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뛰어난 품질과 아름다운 색상으로 젊은이에게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코튼마크가 순면 100%의
뛰어난 품질을 보장하고 있읍니다.
질기고 부드러운 캐쥬얼복지 '버펄로'는 대한방직협회가 100% 순면제품임을 보장하는 코튼마크 제품으로 그 뛰어난 품질이 자랑입니다.
순면 특유의 부드러운 촉감은 물론, 입을수록 애착이 가는 산뜻한 색상과 흡습성, 통기성, 방풍성이 뛰어나고 값 또한 싸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계절을 가리지 않고 어떤 장소에서 입어도 멋이있는 경제적 활동복지입니다.

COTTON 綿100%

태창기업이 생산하는 원단의 종류

DENIM/데님
1970년대 초반 국내최초로 인디고 데님이 개발 생산에 성공하면서부터 의복은 말할것도 없으며 신발, 원구, 기방류에 이르기까지 그 용도가 광범위하며,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 어떤 장소에서나 출격입을 수 있는 전천후 복지로서 가히 면직물의 왕으로 군림되고 있으며, 당사에서는 꾸준한 연구 개발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읍니다..
□가공 데님
인디고 스트라이프데님, 엠보싱데님, 클링클데님, 칼라스트라이프데님, 스노우데님.
프린트데님

CORDUROY/골덴
1956년 당사가 국내최초로 생산하여 그 품질의 우수성과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계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순"면직물로서 통기성, 흡습성이 좋아 계절에 관계없이 즐겨입을 수 있는 복지입니다
□정통골덴
일반적인 골덴으로 1인치당 4골의 태(太) 골덴으로부터 21골의 세(細)골덴까지 50여 종류가 있읍니다
□변형골덴
Fancy 골덴, 오철골덴, Ribless 골덴
Print 골덴

VELVETEEN/우단
골덴과 동시대에 개발된 우단은 생산공정이 까다롭고 어려운 반면에 제품이 우아하고 화려한 멋을 풍기기 때문에 "직물의 예술품"이라고 불리웁니다.
중세이후 구미 각국에서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기품이 넘치는 황실 의상과 고급 내부장식 소재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직물의 독특한 외관과 감촉은 고급 여성복 소재 및 실내장식용으로 적합한 소재입니다.

ESPUN/에스판
대창기업(주)의 축적된 기술력에 의해 국내 최초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개발품인 상하좌우의 고신축성 활동 복지로서 신축이 상하좌우로 되어 어떠한 행동이나 자세에서도 구김이 잘 가지 않고 본래의 산뜻한 색상과 원래의 그 맵시가 변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산뜻한 착용감에 기능성, 활동성 또한 높아 발랄한 행동파 젊은이들에게 더욱 좋은 복지입니다.
에스판 생산품목
에스판 골덴 칼라데님 인디고 데님
에스판프린트 골덴 칼라데님 인디고 데님

중남미 민족주의와 미국의 전략

민족의 자존위한 이데올로기 표출
내정간섭·독재지원·경제착취등 식민주의 심화

金成柱
<성균관대조교수국제정치학>

Ⅰ、머리말

파나마사태의 암화와 미군의 온두라스 파병등으로 世界의 이목이 중남미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있어서 직·간접적 당사자인 美國의 태도 역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남미국가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및 역사적 특수성과 美·蘇 강대국의 세계전략 및 이데올로기의 갈등등이 복합적으로 作用하고 있기 때문에 중남미지역의 現狀을 명백히 규정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자국의 국가안보와 이익, 카리브海와 중남미 지역에서의 주도권유지라는 차원에서의 美國의 전략은 이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反美民族主義運動과 좌용-반좌용의 악순환과정을 반복하고있으며 제3세계 국가들에게 시사하고 있는바가 매우 크다.

본교에서는 현재의 니카라과·파나마사태의 부분적 이해를 돕기위해 중남미지역의 歷史的 특수성과 이지역에서 확산되고있는 민족주의 운동을 공산주의와의 상관관계속에서 단편적으로나마 분석하고 미국의 전략을 논의하고자한다.

Ⅱ、중남미地域의 特殊性

오랜 역사의 질곡속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民族意識을 창출하기 위한 외로운 투쟁이 중남미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19세기말 스페인의 통치에서 벗어나 美國의 달러地域으로 편입되면서 이러한 투쟁은 그 깊이를 더해 가고 있다.

중남미地域은 오랜동안 그 사회를 유지해왔던 전통적인 구조와 제도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보수적인 지역이며 농민·노동자·학생들은 비혁명적이고, 게릴라활동을 전국적인 호응을 받고 있지 못하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共産黨은 이미 늙고 관료화되어 버렸다는 美國的 시각은 이제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으며, 중남미지역의 발전과정의 본질을 예리하게 分析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15세기이래 이베리아반도의 영향을 받은 중남미사회의 전통적 구조는 유럽사회에서 나타난 프로테스탄트개혁, 자본주의의 융성, 과학적 혁명, 사회적 다원화, 정치적 민주화등 근대화의 조류로부터 소외된 채, 위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와 카톨릭규범속에서 오랜 역사를 이어왔다. 따라서 英·美式 政治·經濟의 단계적 발전모델은 중남미지역의 수직적 위계구조와 계급·계층간의 分化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18세기 경험주의와 계몽사상이 중남미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으나 그러한 영향은 피상적이고 귀족계급을 중심으로한 소수집단에 국한되었다.

19세기 중남미국가들은 독립전쟁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혁명으로 승화시킨데 실패했으며, 헌법의 형태등의 대의제도와 민주적 권리의 확립과 착취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선진자본주의국가와 주변부국가간의 노동일률등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잉여가치」는 국제적 교역의 형태를 통해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수중에 들어 가고, 선·후진국간 뿐 아니라 주변부의 상·하층간의 빈부의 차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남미지역의 社會變動은 제국주의에 대응하여 민족주의와 공산주의가 응집력을 갖도록 하고 있는것 같다. 다시말해, 선진독점자본주의에 대한 정치·경제적 굴욕감은 중남미地域의 민족주의와 외견상 민족주의적 전략을 가미한 共産主義라는 두 이데올로기의 뒤얽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식민주의와 종속에 대하는 대중동원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계급」과 「민족」이 다양한 형태로 융합되어 民族的 투쟁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表出되고 있다.

중남미지역에서의 중요한 과제는 압도적인 제국주의의 침투속에서 민족주의와 국가발전문제를 어떻게 정립하느냐 하는데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산업화과정속에서 누적된 경제적 종속구조및 제국주의의 비호를 받고 있는 정치체제와 깊이 연계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모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중남미지역의 반제국주의운동과 「민족주의의 공산화」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남미지역의 중요한과제는 압도적인 제국주의의 침투속에서 민족주의와 국가발전문제를 어떻게 정립하느냐하는 문제이다.

Ⅲ、중남미 地域의 民族主義

오늘날 제3세계국가들은 2차대전을 전후로하여 「形式的獨立」을 획득함으로써 직접적인 공동의 적과 연대적 지향성을 상실했으나, 정치·경제·사회적 대립의 변동시대에 있다.

이러한 사회변동속에서 제3세계의 민족주의는 발전문제와 함께 새로운 전통의 창출, 정체성의 확립 그리고 근대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렬한 사상체계와 이념체계로 등장했다. 더우기, 제3세계의 민족주의는 사회적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토대위에서 역사발전의 법칙성을 추구하는 마르크스주의와 결합하여 이론적 추정이나 실천적 대와는 정반대로 「공산주의의 민족주의화」 혹은 「민족주의의 공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선진독점자본주의 국가들이 식민제국주의의 논리에 합류하여 사회주의가 내세우는 프롤레타리아계급의 국제적 단합을 촉구하는 전통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동안, 공산주의는 저발전된 제3세계지역에서 민족주의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동서냉전의 논리아래서 퇴색되었던 民族主義가 1970년대 이래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제3세계지역으로 擴散하고 있다.

중남미지역에서의 「민족주의의 공산화」 혹은 「공산주의의 민족주의화」 현상은 원초적으로 자본주의체제에 內在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과 갈등, 독점자본주의 국가들의 식민정책과정속에서 表出된 중남미국가들의 민족해방운동과 계급해방운동속에서 규명되어야 할것이다. 즉, 중남미지역의 민족주의를 보다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2차대전이래 소위 중남미지역의 민족해방운동 또는 사회주의운동을 억압하고 중남미지역을 자본주의 틀안에 편입시키려는 끊임없는 자본주의적 팽창을 위한 제국주의국가들의 정책전환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중남미국가들의 「사회」 및 사회체제속에서의 갈등은 反자본주의와 反제국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있다. 중남미지역의 민족주의는 서구제국, 특히 英-美式 발전과정을 답습함으로써 경제발전 나아가 정치발전을 성취할 수 있다는 擴散理論家(diffusionist)들의 모델에대한 중요한 도전이다.

오늘날 중남미지역은 페루라스교 인 가치들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질서의 구조와 사회의 기본적인 본질은 엘리트주의에 입각한 권위적전통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스페인세력의 붕괴와 새로운 세계와의 접촉속에서, 영국의 산업혁명, 프랑스의 혁명사상,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등 새로운 사상과 발전개념들은 근대화와 함께 지배적인 전통에 점증적으로 도전해 왔다.

또한, 중남미지역의 知的 歷史는 국가와 사회간의 「유기적-조합주의」와 사회변동속에서 나타난 「혁명적 급진주의」간의 이념적 대결이 강하게 지배했다. 중남미 각국마다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自由主義는 거의 성공을 못하고, 질서와 점진적 개혁속에서 현상유지를 강조하는 실증주의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진정한 의미의 변화와 갈등은 內面化되었다.

2차대전이후, 과거의 질서를 혁명을 통해 타파하거나 (쿠바) 새로운 정치형태를 추구했던 국가 (칠레) 등이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중남미국가들은 이베리아반도의 전통과 권위적 정치체제, 근대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이중구조, 세계자본주의의 침투와 식민지 경제체제속에서 혁명과 반동등 강한 이데올로기적 계급적 갈등과 투쟁을 계속하고있다. 앤더슨의 표현처럼, 중남미지역은 봉건주의·귀족엘리트주의·권위주의등 기존정치이데올로기와 사회의 우위에 쐐기를 박았으며, 특히 1875년부터 시작된 영령 가이아나와 베네수엘라간의 국경분쟁은 중남미지역에서의 미국의 우위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먼로독트린을 배경으로 한 미국의 정책은 중남미지역에 대한 구주열강의 植民政策을 위축시키고 중남미지역을 미국의 달려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러한 美國의 우월권은 영국의 강력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카리브海에서의 영국의 후퇴는 중남미지역에서의 미국의 주요방위권 형성과 패권주의를 의미했다.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美國은 사실상 중남미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파나마의 운하권을 독점했다. 이후, 미국의 투자기업들이 중남미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고 서반구에서의 미국의 우위는 점차 강화되어 왔다.

1970년대에 들어서, 미국과 중남미국가간의 관계는 분쟁과 갈등 그리고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1958년말 쿠바에서 혁명이 성공하고 1960년말 페루와 볼리비아에 좌익 민족주의 정권이 들어 서고 1970년 칠레의 아옌데정권이 사회주의정책을 표방함으로써, 이 地域에서 美國이 가지고 있던 이익을 크게 위협했다. 중남미地域에서의 갈등은 이 地域에 대한 美國의 利己的이고 불합리한 경제정책과 정치·군사적 간섭이 중요한 動因으로 작용했으며, 1969년 닉슨대통령이 파견한 록펠러 현지조사사절단에 대한 거센반발 데모와 폭동은 이러한 면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미국은 중남미地域의 개별 국가와 정치·군사뿐 아니라 경제 (자본·기술등) 분화에 이르기까지 밀접하고도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단시일내에 해결될 수 없는 根本的 利害가 얽혀있다. 중남미地域에 대한 미국의 基本戰略은 미국의 「國家利益」과 「安保」라는 차원에서 그 양면적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 3가지측면의 對중남미전략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전략적으로,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反美 적대적 세력의 대두를 중남미국가들에 대한 공격기지로서 뿐 아니라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물자의 획득을 제한 혹은 불가능하게 하고 美國의 軍事力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미국의 利益에 反한다고 보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美國의 강한 집착력은 먼로독트린, 리오조약의 체결, 쿠바미사일 위기, 그라나다 침공, 니카라과와 파나마사태등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

특히, 카리브海와 파나마운하의 전략적위치는 미국해군기지를 위한 교두보로서 그 중요성이 절대적이며, 근접지역의 안전확보는 美國安保의 核을 이룬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둘째, 경제적으로, 중남미지역은 미국의 중요한 공업제품 판매시장이자, 원료공급지이며, 투자대상지역이다. 이러한 점은 중남미의 지역경제가 미국의 對外총수출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연히 드러 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對美의존도는 중남미경제의 종속구조 혹은 「저발전의 발전」이라는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중남미地域 국민들의 反美·反제국주의 감정을 사고 있다.

세째,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중남미지역의 20여개국의 지지여부는 미국의 국제적 위신과 지도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물론, 중남미국가들이 항상 美國의 입장을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것은 아니지만, 美國은 美洲기구 (OAU)를 중심으로 자신의 입장을 강화해 왔다. 美國은 중남미地域에서 자국의 이익에 결정적 타격을 줄 소련 및 쿠바의 혁명세력을 견제하고 자국의 영향권을 보존·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남미국가들에 대한 美國의 직·간접적 내정간섭, 독재정권지원, 경제적 착취등 미국의 일방적 행동들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이 지역국민들의 對美反感은 쉽게 해결될 수 없다. 특히 冷戰이후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의 영향권으로 부터 탈피하고자 민족주의, 중립주의, 독자정책등을 내세우고있는 現狀은 제3세계국가들에게 他山之石이 되고 있다.

따라서, 美國의 對중남미전략도 이 지역에서의 자국의 이익과 안보의 지속적유지를 위해선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Ⅳ、중남미地域에서의 미국의 戰略

19세기 국제무대에로의 미국의 등장은 막강한 해군력을 배경으로 중남미를 포함한 전세계에서의 英國과 착취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Ⅴ、맺는말

중남미地域에서 美國이 누려왔던 우위적 입장은 2차대전을 전후로해서 비교적 단순한 협조적 관계속에서 유지되었다. 이제 미국의 利益과 安保를 바탕으로한 양면적 對중남미정책은 군사·정치·경제·문화등에서의 구조적 종속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있다. 이 地域에서 일고있는 「민족주의의 공산화」 현상은 反美·反제국주의 투쟁과 함께 중남미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카리브해와 중미지역에서의 미국의 지나친 개입은 이 지역에서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확산을 도울 뿐이다. 미국이 선린외교의 전개와 구조적 불균등의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정책변화를 제시하지 않는한, 그리고 구태의연하게 군사력의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한, 美國의 대중남미전략은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 밖에 없으며, 혁신적 급진세력들에의한 이념적 「혁명」 투쟁과 민족해방운동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패권주의에 한계…반미·반제국주의 운동 계속

특히, 카리브海와 파나마운하의 전략적위치는 미국해군기지를 위한 교두보로서 그 중요성이 절대적이며, 근접지역의 안전확보는 美國安保의 核을 이룬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둘째, 경제적으로, 중남미지역은 미국의 중요한 공업제품 판매시장이자, 원료공급지이며, 투자대상지역이다. 이러한 점은 중남미의 지역경제가 미국의 對外총수출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연히 드러 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對美의존도는 중남미경제의 종속구조 혹은 「저발전의 발전」이라는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중남미地域 국민들의 反美·反제국주의 감정을 사고 있다.

세째,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중남미지역의 20여개국의 지지여부는 미국의 국제적 위신과 지도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물론, 중남미국가들이 항상 美國의 입장을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것은 아니지만, 美國은 美洲기구 (OAU)를 중심으로 자신의 입장을 강화해 왔다. 美國은 중남미地域에서 자국의 이익에 결정적 타격을 줄 소련 및 쿠바의 혁명세력을 견제하고 자국의 영향권을 보존·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남미국가들에 대한 美國의 직·간접적 내정간섭, 독재정권지원, 경제적 착취등 미국의 일방적 행동들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이 지역국민들의 對美反感은 쉽게 해결될 수 없다. 특히 冷戰이후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의 영향권으로 부터 탈피하고자 민족주의, 중립주의, 독자정책등을 내세우고있는 現狀은 제3세계국가들에게 他山之石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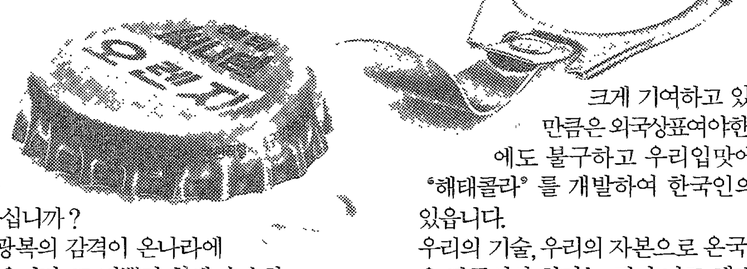
따라서, 美國의 對중남미전략도 이 지역에서의 자국의 이익과 안보의 지속적유지를 위해선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鹿野苑

악법의 굴레

▲총이나 칼에 비해 말과 글은 평화적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력은 총칼을 압도한다. 『文은 武보다 강하다』는 리튼의 말이나 『말은 인류에 의해 쓰이는 가장 강력한 약』이라던 키플링의 얘기가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은 言語의 위력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회를 막론하고 그들의 안보의 한 방편으로 「反動的」인, 혹은 「체제유지」를 위협하는 언론·출판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그들의 체제 속에 흡수시키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미 분단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독재의 암운아래서 그들의 논리에 역행하는많은 말과 그들을 탄압해 왔다. 특히, 아전인수격 법조문을 만들어 「언기법」이니, 「국보법」이니 하면서 다양한 사고와 견해의 흐름조차 터부시하고 금지하여 왔던 것이다. 또한 유신정권을 거쳐 제5공화국,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갖 惡法의 횡포아래 구금되어 있는 말들과 禁書라는 이름아래 자유의 권한을 박탈당한채 묶여져있는 글들이 얼마나 많은가. ▲도도한 民主化의 물결에 밀려 4백31종에 걸친 도서를 解禁시킨 것이 작년 10월의 일이었다. 그리고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格인 鄭芝溶, 金起林 두 문인에 대해 공식적인 해금조치가 마련된 것은 지난달 31일이었다. 일견, 이러한 조처들이 民主化로 向하는 첫 걸음으로서 이해되기도 하지만 그 裏面에는 더 많은 수의 압수대상도서·판금도서들과 묶여있는 1백20여명의 납·월북문인들이 있는 것이다. 또한 現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지난 달 대학가서점들과 대학생들을 수색, 도서들을 압수한사실도 그저 간과할 수만은 없는 모습인 것이다. ▲안보 이데올로기 속에서 체제유지를 옹호하며 민중들의 눈과 귀와 입을막는 지배논리는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 아울러 걸핏하면 수색하고 압수하고 禁止하는 非民主的 정권이 건재하는 한, 우리의 혀와 펜은 결코 자유로울수 없으며, 그들이 제시하는 大赦免이니 解禁이니 하는 조처들도 그저 羊頭拘肉일수 밖에 없음을 알아야한다. <玲>

"쉽게 따는 병뚜껑, 캔꼭지 하나에도
우리의 자존심이 숨쉬고 있읍니다."



무심코 따는 병뚜껑, 캔 꼭지 하나에도 우리의 긍지가 담겨있음을 아십니까?
1945년. 조국광복의 감격이 온나라에 가득하던 해였읍니다. 그 기쁨과 함께 순수한 민족자본으로 탄생한 해태는 우리의 상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성실히 일해 왔읍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우리 농민들이 땀흘려 정성껏 재배한 사과, 포도, 감귤등의 과일과 보리를 대량수매하여 만들어지는 "해태써니텐" "해태보리텐"은 농가소득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읍니다. 특히 콜라만큼은 외국상표여야한다는 주위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입맛에 맞는 우리상표의 "해태콜라"를 개발하여 한국인의 긍지를 지켜가고 있읍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본으로 온국민이 사랑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해태의 정신입니다.
우리것을 아끼는 우리민족의 기업 해태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태음료

천연과일쥬스로 만든 써니텐 건강보리음료 보리텐 우리의 것 해태콜라

금융민주화 다시 생각한다

중앙은행 정치적 중립성과 독자적 운영보장돼야

인사·與受信업무등 한정된 민영화탈피를

일반은행

장 원 종
〈경상대교수·재정학〉

현재 市中은행이나 지방은행을 막론하고 정부소유 株式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기업으로서의 은행은 완전 民營化되어 있고 정부는 株主가 아니므로 민영화된 은행의 인사·예산·운영등에 간여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만약 간여한다면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不法·越權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민영화된 은행이면서도 민영은행은 없고, 사실상 정부은행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있다.

작년만 하더라도 많은 은행장이 바뀌었는데, 이중 임기만료에 맞추어 물러난 사람보다 임기중 돌연히 물러난 사람이 더 많았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 임기중 도중하차했지만 거의 모두가 주주총회에서의 결정이전에 「外部」의 뜻에 따라 보따리를 쌌다.

S은행의 K은행장같은 경우는 측근에게 「留任을 보장받았다」고 「비밀」을 털어놓으며 철만에 물러나는 「不運」을 당하기도 했다. 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株總전날까지 이사승진후보로 내정됐다가 하루밤사이에 바뀌는 촌극이 벌어진 일도 있다.

그런데 묘한것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뽑아야할 은행장에 대한 내정인사기사에 官遞 공약으로 내세웠던 군사정부는 거사후 곧 제1차5개년경제개발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개발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投資財源을 그때 당시 연간5%미만의 국민저축률로선는 도저히 조달할 수 없어 택한것이 정부주도하의 通貨增發에의한 財源조달방식이었다.

이같은 투자재원조달방식을 밀고나가려면 중앙은행에서부터 시중은행, 그밖에 금융기관까지 인사에서부터 예산·경영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장악해야 된다고 주장되었고 이같은 주장이 그대로 제도화되어 굳어버린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와 관행인 것이다.

그러나 개발독적을 위한 官治金融의 장기화는 그 「能率」보다 「幣端」이 더 커지게 마련이다. 금융은 금융전문인에게 맡겨 採算性 위주로 운영한는 것이 결과적으로 개발독적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바지하게된다는 것은 각국의 역사적 경험이 말해주고 있기때문이다.

任員인사가 은행 「外部」의 입위에 이뤄지는 경우, 경영능력 위주의 공정인사를 기대할수없게되고 정부의 「指示」나 모처의 전화에의해 巨額대출이 의 튀지면 그 막대한 자금이 올바른 性生活및 사생아의 보호에 관한 국민인식변화를 유도하는 홍보와 계몽은 정부차원에서 강무되어야 한다.

이에앞서 올바른 性生活및 사생아의 보호에 관한 국민인식변화를 유도하는 홍보와 계몽은 정부차원에서 강무되어야 한다.

18~37%, 모두 5조~7조원에 달하고 있다고한다.

또 금융자율화와 관련해서 지시금융이나 인사간여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로 오늘의 중앙은행·韓國은행을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해둘것인가의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중앙은행이 —國의 통화와 신용의 중앙통제기구로서의 기능을 옳게 수행해 나아갈수 있게 하려면은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자적 운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외부의 권력이나 압력단체에 의해 통화관리와 신용정책이 좌지우지되어서는 통화가치의 안정을 기할수 없을은 물론, 막대한 금융자금이 엉뚱한 목적에 유용되거나 특정계층의 이익증대에만 남용될 우려가 있기때문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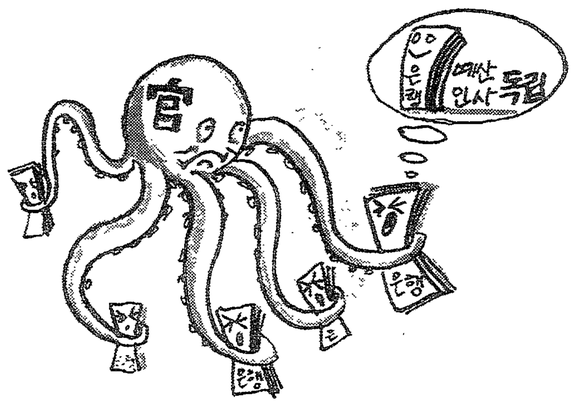
지난50년 미국의 「브룸리드」 박사일행이 起草해 만들어진 韓國銀行法은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이 엄격히 보장되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같은 한국은행법은 5·16이후 기술한 바와 같은 명분을 내세워 정부의 개발정책의 뒷받침 기능으로 변질되었다.

5·16후 改惡된 한국은행법은 「재무장관이 통화·신용에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韓銀法上 통화·기본적 문제점이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금융 통화에관해 최고정책결정기관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金融通過委員會」라는 비아냥거림을 듣고있는 현실이 현재의 실상을 말해주고있다.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자체성 립된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議會에만 책임을 질뿐 행정부로부터 독립돼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은 외부권력이나 압력단체에 의해 통화관리와 신용정책이 좌지우지되어 금융자금이 다른 목적에 남용될 우려를 낳고있다.

소식통의 말을 인용, 훨씬전에 보도되고 그것이 그대로 들어맞는다는 점이다.

이처럼 한 株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정부」가 은행인사를 좌지우지하는 현실, 「모처」로부터 전화 한통화에 거액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은행풍토,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금융업의 實相이고 이 때문에 「官治金融」이라는 용어까지나왔다.

官治금융의 본격적인 태동은 61년 5·16군사혁명후 한국은행법의 改惡에서부터 비롯된다. 「숯炭에 빠진 民生苦를 시급히 해결한다」는 것을 혁명 바른 투자목적에 투입된다든가 세제에 원리금이 상환된다」는 로상은 당초부터 없고 「金融不實化」는 당연한 귀결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이자를 제때 못받고 있는 5개市中銀行의 부실채권은 은행에 따라 신용정책의 수립과 운영에관한 권한을 갖고있는 금융통화위원회는 하나의 요식적인 결치레 기구에 불과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韓銀의 인사, 예산, 운영등에 관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간섭에 따르지 않을수 없게되어 있는 것이 현재도의 이 유린, 침해될 경우, 어떤결과를 자초하게 되는가를 수없이 체험한 각국은 오랜세월에 걸쳐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고심해 왔다.

1차대전직후 前代未聞의 엄청난 인플레를 경험한 서독은 2차대전후 중앙은행을 아예 독립시켜 우리도 선진국대열에 도전하고 민주화를 성취하기 위한 몇가지 제안을 시점에 와서 과거와 같은 官治금융의 폐해를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게 되어있다.

중앙은행의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몇가지 제안을 하고싶다.

①금융위원은 근로자, 농민, 중소기업등 각계를 대표하는사람으로 구성하는 새로운 선출방안을 수립하고 ②金通委 議長은 韓銀總裁로 補하고, 정부에만 참여한다. ③金通委의 권한에 외환업무 특수은행 및 短資·사용금고·投信社까지 추가하여 전체 금융업에 대한 통괄적인 통제권을 부여한다. ④재무장관의 감사임명권은 폐지하고 ⑤韓銀總裁는 대통령이 理事추천을 받아 임명하되 그 임기를 보장하도록 韓銀법을 개정해야 될것이다.

그리고 시중은행등 일반은행도 株式所有만의 한정된 민영화에서 인사와 여수신업무등이 모두 명실공히 자율화가 이뤄질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資源의 효율성제고와 부실채권의 사전방지를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밖에 無原則한 兼業主義의 채택으로 각 금융기관의 업무가 중복되고 유사금융상품이 속출하여 전문가가 아니고선는 어떤 기관이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조차도 알수 없게 되어 있다.

정책금융을 전담해야될 특수은행에 일반은행의 預·貸業務를 兼業케하여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의 구별조차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다가 일반시중은행도 정책금융이 총대출의 50%를 넘어 일반대중이나 중소기업은 제대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短資會社, 綜合金融會社, 投資信託會社, 相互信用金庫등 이른바 제2금융권도 그때그때 편의주의적으로 업무영역을 확대시켜 주었던 관계로 제1·2금융권 상호간에도 管掌업무가 중복되고 있는데다가 제2금융권 자체내에서 마찬가지로 중복된 업무를 허용하여 갈피를 잡을수 없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경쟁과 영역싸움으로 낭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실정이다.

따라서 시급히 교통정리, 곧 금융산업개편이 단행되지 않으면 더욱 더 사태는 악화될 수밖에 없게되어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제기된지 20여년이 경과되었지만 역대 정부는 언제나 일시적 미봉책으로 일관, 그때 그때 땜질하는 식의 수습책에만 골몰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임시방편적 수습책은 문제의 근의적인 해결을 뒤로 미룬채 결과적으로 사태를 자꾸만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닫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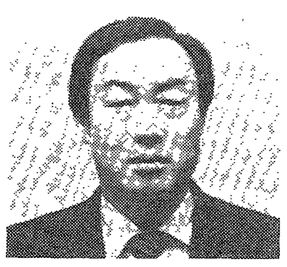
어떤 고위 경제관료가 세미나석상에서 「누가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금융산업개편 정상화는 힘들것」이라고한 말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실정을 一言次蔽之로 표현한 말이라고 하지 않을수없다. 一國경제의 심장이자 혈액순환기능을 담당하고있는 금융산업이 거의 수술불가능상태에 빠지고 말았다는것은 簒政權이 범한 가장 큰 범죄적治績의 하나이고 국민은 그책임을 물고 단죄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時論

「사생아」국외입양 문제있다

아동복지·국내양육권장의 제도개선 필요

혈통중심의 유교사상이 국내입양을 저해



김 근 조
〈국립사회복지원조교수〉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이 거의 1만명에 이른다. 총 인구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은 숫자이지만 연간 발생되는 棄迷兒數에 비교하면 약 58·8%나 되는 대단히 높은 숫자다. 6·25와 같은 대재난을 당한 1950년대 후반에는 전쟁고아, 부랑아, 걸식아가 대량 발생하여 우리 힘만으로는 이들을 돌볼 능력이 없어 이를 목격한 외국의 아동가관이나 민간인이 우리 아동을 거둬들였다. 아무도 비난할 이유가 없었고,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정이 좀 달라졌다.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외국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한편, 국외입양에 대한 비난의 소리도 차츰 대두되기 시작했다. 스스로 의심이 갈 정도로 발전했으며 이에 힘입어 지난번에는 아시아올림픽경기를 거뜬히 치루었고, 몇달 후에는 夏季올림픽경기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것이고 성공적으로 수행되리라 믿는다. 이제는 스스로 갈추어도 믿어주지 않을정도로 성장했고, 날들의 부러움을 사기보다 선진국조차 경계심을 버리지 않는 처지에 이르렀다.

入養對象國은 모두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나라임에는 틀림없다. 최하 1인당 GNP가 1천불 이상되는 지구상의 최선진산업국가들이다.

가끔 이들 나라의 지식인 층에 입양사유를 물어볼 때, 경제발전은 신나게 설명하면서도 入養만은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없어 곤경에 빠진 외교담당자가 적지 않다는 것을 들었다. 『급속한 産業化로 인한 都市化와 性開放풍조가 私生兒를 만들고, 유교사상에 젖은 한국의 가정이 너무 血統重視思想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생아의 입양이 곤란하여 國外에 입양시키는 것 같다』고 궁색하게 변명한다고 한다. 국외입양때문에 멀쩡한 유교사상이 왜곡전달되고, 한국민의 이기심이 혈통중심사상으로 위장되고 있다. 『왜 입양을 한다냐』고 그들에게 물으면 『아이가 사랑스러워』 또는 『입이 돌볼 수 없는 아동을 도운다는 것은 신앙과 일치하니까 입양한다』고 한다.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과 신앙이 없단 말인가.

인정도 사랑도 없는 민족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 두렵다. 너무도 잘 살지 못한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잘 살고 보자고 눈 딱감고 뛰다보니 사랑이나 인정은 걸치레로만 보였단 말인가. 이 와중에 사회의 관심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 소외당하게 되었고 가책이나 수치도 잊은체 계속 입양추고, 또 문제를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 아동입양의 경우에도 해결방안이 뚜렷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쉬쉬하며 감추고 사회의 한 恥部가 노출되는 것처럼 애써 숨기려고 했다. 사회문제는 덮으려면 덮을수록 그 규모나 병폐가 커지고, 오히려 病理現象은 심각해진다. 未婚母의 발생과 더불어 사생아가 증가하고있다는 사실은 사회발전·변화과정에 따르는 필연적인 병리현상중의 하나다. 선진산업국들이 이미 경험한 바이고, 아직도 이들 나라는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정도로 비율과 숫자가 높다.

다만 이곳에는 미혼모와 사생아는 있지만 사회문제는 없다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 이유는 이들을 사회병리현상으로 인정하고 정부와 민간기구에서 예방과 치료사업에 적극 대처한 결과이다. 우리도 이제는 능력이 있으니까 사회문제해결에 정면으로 대처할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性開放 풍조를 「不道德」하다고 몰아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불가피한 현상으로 수용하여 문제를 약화시키거나 후유증이 없도록 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미혼모가 되는 경우 중 「避妊知識이 없거나」(32·1%)、「피임의 시간과 돈가 없어」(32·1%및11·6%) 미혼모가 되었다는 조사와 우리나라 청소년의 혼전성관계 의식조사에서 「애정이 있으면 無關」(42·4%)과 「없어도 상관없다」(2·5%)등의 사회조사는 정부의 적극적 대응자세를 촉구하는 근거자료가 된다. 또 미혼모의 가출동기가 「돈벌기 위해」(40·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볼 때, 빈곤가정에 대한 생계지원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밖에도 이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종합지원, 조사, 보호할 수있는 행정제도 및 기구마련과 기능이 그 기구에 부여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1、自省할 시기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이 거의 1만명에 이른다. 총 인구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은 숫자이지만 연간 발생되는 棄迷兒數에 비교하면 약 58·8%나 되는 대단히 높은 숫자다. 6·25와 같은 대재난을 당한 1950년대 후반에는 전쟁고아, 부랑아, 걸식아가 대량 발생하여 우리 힘만으로는 이들을 돌볼 능력이 없어 이를 목격한 외국의 아동가관이나 민간인이 우리 아동을 거둬들였다. 아무도 비난할 이유가 없었고,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정이 좀 달라졌다.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외국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한편, 국외입양에 대한 비난의 소리도 차츰 대두되기 시작했다. 스스로 의심이 갈 정도로 발전했으며 이에 힘입어 지난번에는 아시아올림픽경기를 거뜬히 치루었고, 몇달 후에는 夏季올림픽경기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것이고 성공적으로 수행되리라 믿는다. 이제는 스스로 갈추어도 믿어주지 않을정도로 성장했고, 날들의 부러움을 사기보다 선진국조차 경계심을 버리지 않는 처지에 이르렀다.

入養對象國은 모두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나라임에는 틀림없다. 최하 1인당 GNP가 1천불 이상되는 지구상의 최선진산업국가들이다.

가끔 이들 나라의 지식인 층에 입양사유를 물어볼 때, 경제발전은 신나게 설명하면서도 入養만은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없어 곤경에 빠진 외교담당자가 적지 않다는 것을 들었다. 『급속한 産業化로 인한 都市化와 性開放풍조가 私生兒를 만들고, 유교사상에 젖은 한국의 가정이 너무 血統重視思想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생아의 입양이 곤란하여 國外에 입양시키는 것 같다』고 궁색하게 변명한다고 한다. 국외입양때문에 멀쩡한 유교사상이 왜곡전달되고, 한국민의 이기심이 혈통중심사상으로 위장되고 있다. 『왜 입양을 한다냐』고 그들에게 물으면 『아이가 사랑스러워』 또는 『입이 돌볼 수 없는 아동을 도운다는 것은 신앙과 일치하니까 입양한다』고 한다.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과 신앙이 없단 말인가.

인정도 사랑도 없는 민족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 두렵다. 너무도 잘 살지 못한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잘 살고 보자고 눈 딱감고 뛰다보니 사랑이나 인정은 걸치레로만 보였단 말인가. 이 와중에 사회의 관심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 소외당하게 되었고 가책이나 수치도 잊은체 계속 입양추고, 또 문제를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 아동입양의 경우에도 해결방안이 뚜렷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쉬쉬하며 감추고 사회의 한 恥部가 노출되는 것처럼 애써 숨기려고 했다. 사회문제는 덮으려면 덮을수록 그 규모나 병폐가 커지고, 오히려 病理現象은 심각해진다. 未婚母의 발생과 더불어 사생아가 증가하고있다는 사실은 사회발전·변화과정에 따르는 필연적인 병리현상중의 하나다. 선진산업국들이 이미 경험한 바이고, 아직도 이들 나라는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정도로 비율과 숫자가 높다.

다만 이곳에는 미혼모와 사생아는 있지만 사회문제는 없다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 이유는 이들을 사회병리현상으로 인정하고 정부와 민간기구에서 예방과 치료사업에 적극 대처한 결과이다. 우리도 이제는 능력이 있으니까 사회문제해결에 정면으로 대처할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性開放 풍조를 「不道德」하다고 몰아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불가피한 현상으로 수용하여 문제를 약화시키거나 후유증이 없도록 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미혼모가 되는 경우 중 「避妊知識이 없거나」(32·1%)、「피임의 시간과 돈가 없어」(32·1%및11·6%) 미혼모가 되었다는 조사와 우리나라 청소년의 혼전성관계 의식조사에서 「애정이 있으면 無關」(42·4%)과 「없어도 상관없다」(2·5%)등의 사회조사는 정부의 적극적 대응자세를 촉구하는 근거자료가 된다. 또 미혼모의 가출동기가 「돈벌기 위해」(40·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볼 때, 빈곤가정에 대한 생계지원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밖에도 이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종합지원, 조사, 보호할 수있는 행정제도 및 기구마련과 기능이 그 기구에 부여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2、問題解決은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이 없을 때는 주저하거나 감사업이 진행되어왔다. 이제는 관심을 안으로 돌릴때다. 국내에서 발생한 사회문제는 국내에서 흡수하여 조화시켜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우리 손으로 잘 양육하도록 自省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3、問題解決 方法은 융통성을 보여야

아동보호에 있어서 「家庭保護가 좋으냐」, 「施設保護가 좋으냐」, 또는 입양의 경우 「국내입양이냐」, 「국외입양이냐」 한는 택일방식은 우리의 최근 사회가 획일적으로 결정되거나, 선택을 강요받는 사회여건에 영향받은 것으로 본다. 방법은 다양한 것이 당연하다. 또 사회정부 달능력에 따라서는 1 또는 2이상으로 우선순위도 정할수 있다. 아동보호의 경우, 특수아동(예:장애아동, 특수성벽아동등)은 시설보호가 좋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가정보호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一般論이다.

입양의 경우는 가정보호만는 점에서 시설보호에 우선한다. 그러나 입양지역을 국내로 할것이냐, 국외로 할것이냐를 물으면 단연 국내우선이 압도적이다.

다만 입양이 아동복지방법의 하나인이상 획일적으로나 택일적인 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싶다.

4、맺는말

입양은 아동보호의 치료적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모든 사회문제가 그러하지만 예방은 치료보다 더 효과적이며 근본적이다. 그동안의 국외입양의 공은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지금은 功過를 논할 때가 아니라, 국민적 양심에서 거부감을 환기시켜야하고, 국가의 위신도 고려해야 한다. 국외입양에서얻는 이익보다 우리 국민의 다정다감한 전통의식이 퇴색하거나, 경제대국을 자처하는 국가의 체면에 손상이 간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행위가 없다. 다만 국내입양을 적극권유하면서 아동복지중심의 제도와 방법개선이 요청된다. 사랑은 나누면 배가된다.

국민차원의 사회문제 인식절실해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활
유한킴벌리

너무 다른 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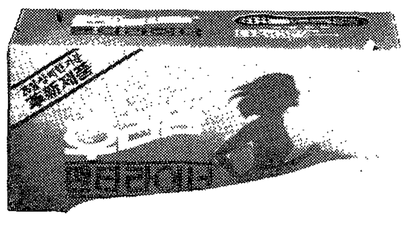
재미없는 강의 들을때와
재미없는 강의 끝났을때와,

시험 보기전과
시험 마쳤을 때와,

샤워하기 전과
샤워한 뒤와,

팬티라이너 안한 날과
팬티라이너 한 날과,

너무 다른 기분!



●후리덤 팬티라이너의 용도—
여성들은 생리가 아닌때라도
늘 약간의 분비물이 있지요.
후리덤 팬티라이너는 이 분비물을 깨끗이
흡수해 주는 팬티청결대입니다.
팬티안쪽에 살짝 붙여두고, 하루에 서너번만 갈아주면
항상 상쾌하고 깨끗하게 지내실 수 있답니다.

코텍스* 후리덤* 팬티라이너

*표는 미국 킴벌리·크라크의 세계적인 등록상표입니다 *REGD TRADEMARK KIMBERLY-CLARK CORP, U S A

PRINTED IN KOREA, 1987 OCT

脫修習記 남김없이 타오르기위해 오늘도 불을 지핀다

『너는 누구냐?』

취재수첩 첫 장에 쓰인 「七日—生」을 다시한번 음미하며 이제까지 저 먼길을 또박또박 떼어 놓는 발걸음으로 채워왔다고 생각하니 현기증이 나는것 같다.

김 일 記者

"어느새 도피자의 모습이 된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며 섬짓 놀라는 모습을 향해 침을 뱉는다 — 퉤 —"

脫!

어설프게 축하받고 싶지않은…, 수술후 최면에서 깨어나 심한 통증을 느끼듯 모처럼 앓아 눕고 싶다. 매일 退社의 꿈(?)을 안고 퇴근하던 5, 5개월에 0. 5를 채우기 위해 쏟아넣은 무모함뒤의 허탈.

그래도 希望은 나에게 남은 한 점 생명의 씨앗으로 고동치는 맥박소리만이 존재를 인식케 한다.

「치기」로 시작된 신문사 생활, 가까스로 「객기」를 부려왔는데 남아있는 것은 「오기」뿐. 동료보다 2배 더 큰「ㅅㅜㅅㅡㅂ」을 짜맞추어 부서진 구름에 잠시 맡겨 두련다.

딜렛탕트. 눈만 높으면서 능력이 따라 가지 못하는 얼간이, 道樂으로 예술의 언저리를 빙빙 돌고 있는 생산성 없는 지식의 소유자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벼어영시인!) ?표로 誤字를 찍어내면서도 정작 覆字 그늘속 진실의 탄성은 외면하고 있구나.

오늘같이 도도한 봄날에도 혈관 속으로 얽어들어오는그 무엇에 대해 지금만큼은 분노를 거둔다. 이미 십장까지 침식 당한뒤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무의미할테니 그리고 어느새 도피자의 모습이 된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며 섬칫 놀라는 모습을 향해 침을 뱉는다— 퉤—.

막막하게 펼쳐진 험로는 이미 바쁜 여정을 예고하는데, 이제 서툰 몸짓을 멈추고 숨가쁘게 허공을 가르는 춤사위를 기약한다.

무인칭이 되어 버린채 완전연소점을 향해 곧추세운 발끝에 불을 지른다. 재하나 남김없이 타오르기 위해….

그런데,

『너는 누구냐!』

<문과대 사학과>

몹시도 추운 날이었다. 왠지 나에게만 불어닥치는 모진 한파에 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어줍잖은 모양새로 어렵사리 원서를 쓰며 시작된 나의 두번째 삶. 쪼그리고 앉아 시험을 보고는 후회와 기대가 뒤엉켜 초라해진 몰골로 빈 강의실로 향하던 발걸음. 이 모든 것이 그 순간 왜 그리 슬프던지… 마구 울어버리고 싶었다.

「문장을 압축하는 일이야말로 大家의 제일의 징조」라던 어느 문호의 말에 매료되어 첫발을 디뎌놓았던 東大新聞社!

김 경 애 記者

"東岳의 한사람으로서 「알권리」에 무심치 않으며 나에게 주어진 「알릴권리」를 시계의 초침에 담아내련다"

지하실로 향하는 계단을 밟으며 기대에 젖었고 지하실의 어둠에서 움츠러드는 나를 발견했다.

신문사에선 철칙같은 「記者의 感」이 내게는 왜 그리 더디게 오는지. 취재수첩끼고 출입처를 돌때면 항상 어리둥절해하는 내모습에 헛웃음이 나고, 되레 장황한 강의(?)를 들으며 눈 둘곳 찾다가 얼른 뛰쳐나와 긴한숨 내어 뿜기를 몇차례.

또 내딴엔 애써서 써낸 기사가 데드라인에 걸려 넘어지고, 산산이 흩어져 버린 글자들을 주워 모을 때의 초라한 내 모습이란….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데 불공평하게도 유독 나에게는 반만 주어진듯 하다.

바쁜 나날들.

쫓기고 쫓기는 시간들속에서 오직 떠오르는 생각은 「시계의 바늘을 움켜쥐고 싶다」는 것 뿐이었다.

그래도 시계바늘은 돌아갔고 어느새 거추장스럽기만 했던 修習딱지를 뗀다. 修習은 인간도 아니라던 선배의 말에서 약간의 서운함과 더불어 안일함이 나의 수습기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젠 새 접두사에서 내 몸의 무게를 느끼며 그 만큼의 책임을 함께 느낀다. 기자이기 이전에 동국의 한 일원으로서 「알권리」에 무심하지 않으며 또한 나에게 주어진 「알릴 권리」를 시계의 초침에 담아내련다.

<이과대 통계학과>

그리움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던 지난 여섯 해동안의 겨울. 그 겨울을 처음으로 무감각하게 흘려 버린것은 신문사라는 유배지에 가차없이 팽개쳐 버려진 그날 이후부터였다. 신고식 때 어이없이 배반당한 나의 순결. 기존의 체제가 모두 낯설게만 느껴진 탓에 나의 존재는당연한 객체일 수 밖에 없다고 자인해야만 했던 수습초기.

東大新聞의 철저한 예속물이 되고자 일요일에도 짝궁과의 만남을 외면한채 기사읽기에 몰두했다. 그러나 경험미달로 두드러기가 돋을 정도의 당혹감을 느껴야 했던 시행착오들.

기사를 쓰거나 글을 청탁하는 것과같은 외형적인 틀은 쉽게 친숙해질 수 있었지만 정작 意識의 주인을 잃어버린채 벙어리가 되고 마는 나를 망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역부족이었다.

개미는 그들의 여왕개미를 단 한 손가락에 눌러 죽일 수 있는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글을 그토록 좋아했던 만화속에서 발견하고 애써 개미를 민중에, 여왕개미를 민주화에, 손가락을 군부독재의 권력에 짜 맞추려했던 어리석음. 대학1년이 다 지날쯤 시작된 어정쩡했던 수습기간, 동료들과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짓도 결국은 하찮은 열등의식속에 부대낀 경쟁심리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상황에 변질된 순리와 역행사이를 오가며 正論의 고정침을 부끄럼없이 꽂을 수 있는 나를 진정 갈망했다.

활자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픈 당찬 언론, 개결스럽게 진실을 토해내는 언론. 이제 구태의연한 삶을 벗어나 훼손당하지 않는 나의 의지와 용기를 가늠해 본다. 부패된 시신을 처참하게 갉아먹는들쥐와 같이 맹렬히 東大新聞을 사랑하리라. 무너진 글속에서 피어오르는 한가닥 담배연기의 향내음을 음미하듯이. 無限의 시선이 영혼을갈망하는 들개와 접맥된 그날 수습은 뒷걸음치며 멀어져갔다.

<이부대·전산학과>

지 동 철 記者

"부패된 시신을 처참하게 갉아먹는 들쥐와 같이 맹열히 東大新聞을 사랑하리라"

學問과 愛書

東洋이 西洋에 뒤진 까닭이 필기도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이 있다.

서양의 필기도구는 강필(鋼筆)이라서 단단하여 빨리 쓸 수 있는데 비하여 동양의 필기도구는 모필(毛筆)이라서 부드러워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동양과 서양의 다른점은 그뿐만이 아니다. 생활관습이나 사고방식이나 서로가 다른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예능은 실기를, 자연과학은 실험을, 사회과학은 실제를 중요시한다면 인문과학은 아무래도 문헌(文獻)을 중요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하겠다.

이러한 연구방법에는 별반 차이가 없겠으나 같은 인문과학을 연구하더라도 문헌—(冊)에 관한 관념은 서양과 동양 학자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양에서는 도서관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굳이 학자 개인이 많은 분량의 책을 소장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동양에서는 학문의 길이 바로 애서(愛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학문의 마지막 목표도 애서(愛書)·수서(蒐書)에있다고 하면 과시 지나친 주장일까.

수중에 자료를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학문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비(譬)하건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서는 병사라 할 만하다.

그러나, 많은 자료를 자신의 서고에다 가두어 두고 남에게는 보여 주지도 않는 단순한 수장가(蒐藏家)도 곤란하다. 문헌은 결코 골동품일 수는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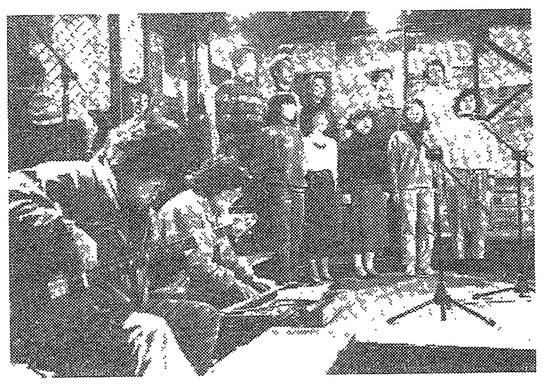
崔 範 勳 <문과대교수·국어학>

문헌은 반드시 재창조하는 데 그 참다운 의의가 있다 하겠으니 논문을 쓰고 저작활동을 하는 데 유용하게 재활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잔뜩 모아만 놓고 쓰지 않는 사람은 모으지도 쓰지도 않는 사람보다야 낫다고는 할지 몰라도.

노래를 찾는 사람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귀는 노래를 대하는데 지극히 익숙해져 있다. 즐거울 때나, 우울할 때나, 대화를 하는 도중에서도. 이처럼 노래가 흔한 세상에서 노래를 찾고자하는 자그마한 모임이 결성돼,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름하여 「노래를 찾는 사람들 (회장 : 이경호)」



<사진·「노래를 찾는 사람들」공연장면>

민중의 건강한 삶 노래에 담아
대중가요의 퇴폐·상업성 지양
관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당

극단 연우무대에서 특별기획한 네번째 공연으로 「노래를 찾는 사람들2」가 지난 2일부터(평일/7시반, 휴일·토·일요일/4시, 7시)혜화동 연우 소극장 무대에 올려지고 있다.

노래패인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삶의 노래를 발표하게 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서민들의 삶을 진솔하게 그린 「못생긴 얼굴」 「땀흘려 거둔 음식」 「떠남이 아름다운 사람이여」와 노동현장에서 배고픈 자의 투쟁과 배부른 자의 인색을 담은 「저 평등의 땅에」 「뒤풀이 보아도」, 4.3제주항쟁, 4.19의거, 광주항쟁, 87년 6월을 각각 노래한 「잠들지 않는 남도」 「진달래」 「오월 이야기」 「마른 잎 다시 살아나」를 비롯한 대학가의 노래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광야에서」 등 그동안 「운동권 노래」로 불리워졌던 약20여곡의 작품이 선보이고 있다.

『메세지가 담긴 노래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민중들의 삶과는 괴리된 현재, 노래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소리공해들과 대항도 해보고 싶었고요, 이러한 이유들이 뿔뿔히 흩어져있던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만든 요인이기도 하지요』

흔히 노래하면, 우리의 것인양 불리워지고있는 팝송과 댄스뮤직, 일부 선택받은 사람들의 사랑 타령과 그 헤어짐의체념따위를 주로 다루는 대중가요 정도를 연상하게된다. 또한 유한적 존재일수밖에 없는 현 특권계급의 유희적·소비적 전유물로서의 노래가 아닌 민중의 삶과 이 시대의 치열한 사회문제를 담은 노래의 주체도 선택받은 대학생들을 비롯한 운동권의 가요일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다.

이러한 기존의 가요에 반기를 들고 제한되어있는 민중의 노래를 삶의 노래차원으로 끌어올리기위해 이들 20여명은 84년 가을 각기 다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모여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결성하게 되었다.

『기존의 관제·외래·상업적인 대중가요에 불만이 많았던 저희이기에 의욕또한 컸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습 공간의 不在, 노래 한 소절에도 과민하고 신속한 반응을 보였던 공연윤리의원회의 도식적 검열등의 많은 제약이 어려웠던 점들중의 하나였지요. 하지만 가사의 진실성, 이 땅위의 구체적 문제를 노래로 그릴수 있다는 자신감과 관객또한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기쁨으로 이 극을 준비했지요』

막이 오른 뒤, 앉아서 보고 듣는 애국가. 화면위엔 찬란하기만한(?) 거짓 영상이 아닌 우리들의 솔직한 과제가 가사와 대비되어 흐른다. 지난 70년대 이후 우리의 정서를 그린 노래와 민족 분단의 아픔,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있는 소외된 민중들의 삶과 노동 현장,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얽매어 민중들의 이익을 외면하고있는 양김씨와 독재자들에 대한 풍자가 영상과 음향으로 관객과 함께한다.

저속한 퇴폐·상업주의 앞에서 무저항적으로 열려져있었던 우리의 가슴, 서양식·일본식 문화유형의 무비판적인 모방에 태연할수밖에 없었던 기존가요에 전통성과 대중성을 회복시켜주는 새 장이었다는 것 또한 이번 공연의 특색중의 하나.

『신선했어요.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우리의 이야기였거든요. 여러 곳에서 보였던 실수와 짧은 공연시간등에 아쉬움도 있지만 이와 같은 공연이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라는 관람객 金모양의 말이 아닐지라도 그동안 노래다운 노래에 갈증을 느껴왔던 우리는 이러한 공연이 더부시 되왔던 현실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이들에게 거는 기대역시 자못 크다.

『지배 계급에 강점당하고 특권층의 이데올로기 편향적인 노래에 대항하며 민중들의 건강한 삶을 구체적으로 노래에 담을 계획』이라며 말을 맺는 김창남 (노래를 찾는 사람들·구성) 씨의 말을 들으며 진정한 노래예술은 민중의 삶이 용해된 그 테두리안에서 불리워져야 한다는 작은 진실을 깨달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현창훈記者>

東岳路

상식론에 입각한 이해와 양보가 필요

『선거법시행령 제3조3항—선거인 명부열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되, 열람장소는 중선위실에서 할수있다 (중선위원 입회하에 열람)』 지난달 29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구역 지역구 책임자의 불찰에 따른 ㅁ학과 미투표자의 명부가 외부에서 열람, 공개되어진 사실이 선거부정—명부의 공개가 선거운동에 이용—의 是非로 치달아 중선위측과 참관인측간에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심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잔디밭, 모닥불주위에 둘러앉은 몇몇 학우들의 떠들썩함에도 아랑곳 없이 교수식당안, 개표장에서는 진지한 틀미팅을 벌인다.

『몇시간 후면 일만오천 학우들이 개표결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등교할 것입니다. 빨리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기다림에 목마른 한 학우의 심정어린 단언이다. 물론 이상황의 일차적인 책임은 시행령에 대한 바른 숙지를 하지못한 중선위측에서 져야 할것이다. 지난해 제19代 총학보궐선거에서도 중선위의 시행착오로 인하여 투표함이 밀봉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여러시간 방치된 사실이 논란이 됐었다. 그러나 입후보자들간의 원만한 타협과 상식론에 입각, 서로의 신뢰하에 개표가 진행되어 19代 총학생회를 출범시킨 사실을 기억한다. 이번 개표과정에서도 예기치않은 실수로 유권자의 의사를 묵살할 수 없다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개표를 진행시킨 사실은 무엇보다 보기 좋았다.

모든 과정에는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은 항상 상식의 기초위에 마련되어 져야 한다. 미투표자의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공정성이 상실되고 투표함 전체가 무효화되어 유권자의 의사가 묵살되었다면 더 큰 불행이 있을지도 모른다. 비록 원칙이 법에 저촉될지라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는 불행하다. 상식은 애매한 규정이나 각론에 의하지 않고도 세상을 바르게 이끄는 힘을 가졌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할때 법보다 상식이 앞설 수도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읽었다.

<이상한記者>

문화부 소식

여러분의 글들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각 분야에 걸쳐 여러분의 의견과 참신한 글들을 투고하여 주십시오.

▲詩
▲연극평·영화평·서평 (원고지 8매내외)
▲문예비평 (15매이내)
▲時論 (10매이내)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문화부>

문화단신

마당극「양아치」

극단 새뜩이에서는 창작마당극「양아치」를 장창의 연출로 오는6일, 7일 양일간에 걸쳐 예술극장 미리내에서 공연한다. 이 땅에서 소외되고 억압받는 민중들 中 가장 하층생활을 하고있는 넘마주의자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땅에…」공연

진주놀이판 큰들에서는 마당극「우리땅에 우리가 간다」를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예술극장 미리내에서 공연한다. 이번공연은 경남 관방마을에서 실재했던 수리세현물 납부사건을 극화한 작품으로 소외된 농촌의 현실속에서 농민들이 주체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다.

「항파두리 놀이」

제주 놀이패 한라산에서는 창작마당극「항파두리놀이」를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예술극장 미리내에서 공연한다.

이 작품은 고려시대 몽고의 침략에 대항하여 마지막까지 항쟁한 삼별초와 탐라토착민들의 시각에서 역사적 사실을 조망해 본 작품으로 민중의 관점을 통해 항쟁과정을 재조명하고 있다.

「흰고개 검은…」

대전놀이패 얼카덩이에서는 마당극「흰고개 검은 고개 목마른 고개 넘어」공연을 오는14일부터 사흘간 미리내 예술극장 무대에 올린다. 충남 서산 간척지문제를 소재로 삼아「서해안시대의 선진국민」이라는 화려한 꿈의 외곽에 버려진 현지 주민들의 호소와 갈망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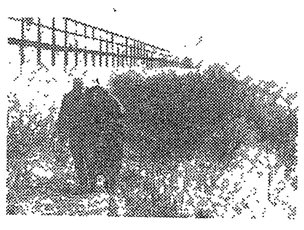
「지지(GIGI)」

소극장 공간사랑에서는 개관11주년 기념공연으로 콜렛트 원작, 강영걸 연출「지지」공연을 오는 15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소극장 공간사랑에서 공연한다. 이번작품은 소극장 연극의 주옥같은 작품으로 외적인 구호에 비해 내실없는 공연이 만연화된 현재의 연극계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것이다. 공연시간은오후4시반, 7시반.

동아 広場

「80년대 화제작」 감상회

본교 연영과및 동국영화연구소주최로 「제3회 80년대 화제작 영화감상회」가 현대독일 영화를 중심으로 오는 15일부터 3일간 본교 동국관 외국어 연수관(L101)에서 열린다. 첫날인 15일에는



「오른손을 위한 협주곡」(오후5시), 「91분(ZISCHE)」(오후7시)을, 16일에는 「침묵의 시간」(오후2시), 「워크맨 부르스」(오후4시), 「독일인의 꿈」(오후6시)을 상영하게 되며 17일에는 이틀동안 상영됐던 작품中 세작품(「워크맨부르스」, 「91분」, 「오른손을 위한 협주곡」)을 재상영한다.

대의원 재등록

사범대 대의원회는 사범대 대의원(과대표) 재등록기간을 4月1일~7日로 정하고 사범대 대의원실 3층에서 접수하고 있다.

이기간중에 등록을 하지못하면 대의원에게 주어지는 모든 특혜를 받을 수 없으니 사범대 대의원들은 필히 등록하기바랍니다. <준비물은 반명함판 사진2매>

불교 교리강좌

중앙불교교육원에서는 오는 8일부터 5월13일까지 매주 금요일 「불교기본교리강좌」를 개설한다. 불교기본교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오는8일까지 중앙불교교육원에 신청해야 하며 수강료는 만원이다.

농업문제강좌

한국 농어촌사회연구소에서는 농민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제2회 농업문제 강좌」를 오는 25일부터 내달 23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오후7시에 한국 농어촌사회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연다. 「전환기의 한국농업·농민문제」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강좌에는 유인호(中大교수), 문병란(시인), 장상환(숭실대강사) 氏등이 연사로 나오며 수강료는 2만원이다.

야학교사 모집

신당적십자청소년학교에서는 중학과정을 가르칠 성의있는 동국야학교사를 모집한다. 자격은 87학번이상이며 접수기간은 4월7일까지이고 접수처는 R·C·Y써클룸이다.

전국대학생논문 현상공모

신한은행에서는「2000년대 금융산업」「농산물수입자유화와 농업정책」「기업윤리와 노사관계」를 주제로 한 대학생논문을 현상모집한다. 응모마감은 6월20일까지이며 자세한 문의는 신한은행본점 기획조사부로 문의하면 된다. (756 0505)

동문알림

대성고동문회

대성고는 오는8일(金) 오후5시에 신입생 환영회 및 정기총회 개최를 목적으로 불상앞에서 모임을 갖는다. 회비는 2천원이다.

대광동문회

대광고는 오는 8일(金), 오후5시에 불상앞에서 동문회 단결및 회장·총무인사를 위한 모임을 갖는다.

(4학년 선배님도 오시니까 1·2·3학년도 꼭 참석바랍니다. 회비는 3,000원)

창원중앙동문회

경주캠퍼스 창원중앙고동문들은 오는 8일 오후5시 토담공원으로 파트너를 필히동반해서 참가하기바람.

김천중앙동문회

경주캠퍼스 김천중앙고 정기동문회를 오는7일 원효관 303에서 오후5시에 갖음. 회비4천원 전원참석要

동정

선학과 M·T

불교대학 선학과에서는 M·T를 이달9일·10일 양일간 안성 camp에서 개최한다.

토목공학과 M·T

토목공학과는 대성리에서 지난2일~3일 양일간 연합M·T를 가졌음.

지교과 MT

오는 9일부터10일까지 이틀간 남이섬에서 연합MT를 가짐.

시림문학상 원고 모집

◇모집분야및 상금
▲詩(3~5편) : 당선작1편 20만원
▲단편소설(80매내외) : 당선작1편 30만원
▲희곡 : 당선작1편 30만원
▲수필(15~20매, 2편) : 당선작1편 20만원
▲문학평론(60매내외) : 당선작1편 30만원

◇모집기간
1988년4월15일 까지

◇자 격
전국 4년제대학 재학생

◇보낼곳 : 780—350, 경주시 석장동707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학생회관 2층 시림편집실 (전화 : 2—0131 교환 : 498)

※당선작은 시림제8집에 게재하며 당선작이 없을시에는 가작처리 (상금은 당선작의 절반) 합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시림편집위원회

통일단결과 대중성확보가 관건

투표율 저조등은 총학운영의 변수로

해설

결하게 「공개주의」실천해야

선거중 일었던 신뢰회복에도 관심 필요

本校生 84名에 장학금지급

「神興장학회」서 불교·법대생 대상

제20대 총학생회 선거 동안 가지난달 29·30일의 투표결과, 총 5천7백81명중 5천1백18명이 투표, 불과 52·3%에 그친 투표율과 지지율 61%를 보인 사실은 통일단결에 대한 학우들의 기대심리를 저버렸던데 대한 준엄한 질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학우들의 폭넓은 호응을 얻기에는 적잖은 장애요소가 되리라는 관측들이다.

뿐만 아니라 올 학생활동의 새로운 중추로 활동할 2학년과 신입생의 투표율이 각각 51·8%와 68%에 그친점 또한 앞으로 대 운동정과, 소위 「NL」계열과 「CA」계열이 총학생회 선거에 있어 통일단결의 기치로 연합, 총학선거에 단일후보함으로써 의욕적 출발을 해 많은 학생들의 기대와 관심을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막판에 이르러 스스로 대동단결의 대원칙을 깼던 사실이 일반학우들에게 큰 실망과 회의를 안겨 주었던 점에서 그 원인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기간중 『통일 그자체로써 큰의미를 가지는것』으로 규정짓고 『本校 뿐아니라 他대학 어디에서도 볼수없었던 통일단결의 기치로 총학을 건설, 대학 내 민중운동의 단결을 위한 불씨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어떤 일이 있어도 대원칙을 지켜내겠다』고 밝혔지만 선거과정에서 『통일단결의 원칙이 깨졌다』, 『상호간의 이견으로 도저히 함께 뛸수 없다』는 식의 주장은 학생대중을 기만한 무책임한 정파성의 발로라고 파악하는 것도 그리 무리는 아니다.

또한 『보다 철저한 통일단결을 지켜내기 위한 진통으로써 후보사퇴를 한다』는 설득력이 결여된 논리를 펼친 후보나 그를 지지, 재선거를 주장하여 고작 23%의 투표율만을 보인 공대등의 자가당착적, 논리는 일반학우들의 운동세력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져와 통일단결과 진정한 대중성의 회복을 위한 노력의 준거로 보기엔어렵다.

뿐만아니라 후보 사퇴와 함께 선거자체를 보이콧한 학생들의 의사가 표출되는 개표시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후보가 당선확정후 태도를 돌변, 사퇴를 철회했다는데에도 의문이 남는다.

『통일단결의 원칙이 깨진 이유는 정치적 입장과 견해로 말미암아 그간의 분열과 대립을 보여왔던 양 계열과 「CA」계열이 총학생회 선거에 있어 통일단결의 기치로 연합, 총학선거에 단일후보함으로써 의욕적 출발을 해 많은 학우들이 기대했던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서 그 결과는 불과 52·3%의 투표율에 그친 저조한 참여도와 소위 「圈과 非圈」으로 대별되는 양후보의 상이한 정치적 입장에 따른 선거과정에서의 마찰음, 그리고 「운동권의 통일단결」을 기치로 들고 나왔던 기호1번측의 막판 분열상등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기도했다.

특히, 대중성의 확보와 대의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일꾼을 기른다는 취지로 지난3월초 설립됐는데 면서 불교대학 재학생인 총단추천장학생 80여명과 법과대학 각학년 수석학생 4명으로 종단추천장학생에게는 학기당 10만원씩, 법과는 수석장학생에게는 학기당 20만원씩 학비보조금형식으로 지급한다.

후1번 최재성(불교4)이 호영(국문4)조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대의원총회를 거쳐 개정된 학생회칙에 따라 회기년도를 3월1일~익년 2월28일로 하여 처음 실시된 이번 선거는 학생들의 저조한 참여도와 소위 「圈과 非圈」으로 대별되는 양후보의 상이한 정치적 입장에 따른 선거과정에서의 마찰음, 그리고 「운동권의 통일단결」을 기치로 들고 나왔던기 후1번측의 막판 분열상등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기도했다.

특히, 대중성의 확보와 대의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일꾼을 기른다는 취지로 지난3월초 설립됐는데 면서 불교대학 재학생인 총단추천장학생 80여명과 법과대학 각학년 수석학생 4명으로 종단추천장학생에게는 학기당 10만원씩, 법과는 수석장학생에게는 학기당 20만원씩 학비보조금형식으로 지급한다.

「동국가든」보수

「동국가든」의 전체보수작업이 지난달30일 모두 끝났다.

총공사비 5백만원을 투입한 이번공사에서는 바닥에 물이 새지않는 고급타일을 비롯, 주방 칸막이설치, 천정 습기제거를 위한 석고보드를 시설하는등 새단장을 완료했다.

한편, 지난4일 개장예정이었던 동국가든은 학생복지위원회에서 학교측과 업주와의 임대계약에 이의를 제기한는등 논란이 일어 개장이 지연되고 있다.

방송국·교편등 수습국원및 위원모집

교육방송국(D·U·B·S)과 교지편집위원회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습국원 및 위원을 모집하고있다.

방송국과 교·편의 원서 교부및 접수는 각각 오는 6일 오후2시와 12일 오후3시까지 방송국과 편집실에서 받으며, 시험은 방송국이 오는6일 오후5시에, 교편은 오는12일 오후5시반 학림관(T201)에서 각각 치른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방송국과 교·편에 하면 된다.

자연대 간담회

단대발전 주제로 열려

자연과학대 교수·학생간 부간담회가 지난달 31일 오후5시 교수회의실에서 열려 자연대건물확보와 교수충원, 체육대회행사 문제등 총3개항을 주안건으로 약 2시간동안 토론을 벌였다.

이자리에서 학교측은 우선 자연대 건물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수충원 문제는 현 자연과학대 법정교수확보율 46%를 89학년도에 능력있는 교수로 다수 충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시설 직영화 제자리걸음

담당부서등의 능동적 대처 요청돼

학생식당을 비롯한 교내 복지시설의 직영화작업이 별다른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해 8월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박동열 화공4) 측의 교내복지시설 직영화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계속 논의되어 왔는데 현재 교내에는 다향관 학생식당과 서점등 20여개의 복지시설이 각 업주와의 임대계약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한편 담당부서인 총무처에서는 학생복지위원회의건의가 들어오면 신속히 직영화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있으나 현행임대계약이 89년 1월30일까지로 되어있고, 직영화에 따른 구체적자료가 준비되어 있지않는등 제반여건의 미비로 올해안에는 직영화실시가 힘들 전망이다.

예·복협 발대식

오는14일 충강당서

「예비역·복학생협의회 발대식및 복학생환영대회」가 오는14일 오후1시 예혈전설문비위원회(회장=이남재 이철4) 주최로 중강당에서 열린다.

총3부로 진행될 이번행사에서는 88년도 경기전망과 정치동향및 취업대책에 대한 강연, 끝동체놀이등을 갖는다.

한편 예혈건운위는 지달15일과 21일, 예혈재건을 위해 1, 2차 예비모임을 갖고 오는8일 예혈전운위 사무실(학생회관1층)에서 단과대학생회 차원의 조직활성화 방안모색을위해 제3차모임을 가질예정이다.

宋俊浩교수 초청강좌

대학원사학과 주최로

「韓·中 社會史비교연구」를 주제로한 宋俊浩(원광대·동양사전공) 교수 초청강좌가 지난 2일 오후 2시 동국관(L310)에서 대학원 사학과 주최로 열렸다.

이문수[同門] 내통령상

경행과 졸업생7명 경위임관

경찰간부 졸업식

이문수君등 본교 경찰행정학과동문 7명이 오는 29일 「제36기 경찰간부후보생」졸업식에서 경위로 임관한다.

특히 이번 임관식에서 이문수君등 대통령상을, 김성수동문(82졸)은 치안본부장상을 수상하게되는데 본교출신 경위임관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성수(82졸) ▲이날루(83졸) ▲최호열(83졸) ▲안재봉(85졸) ▲이문수(87졸) ▲강신걸(87졸) ▲박형길(88졸)

보사행정 규탄

한의대 비상총회서

한의과대학 학생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부터 학생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학관 앞에서 보사부의 부절서한 의료행정에 항의하는 비상학생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학생들은 『최근 보사부에서 의료과 학생등 조계종소속 승려이 단추천장학생 재학생인 총 과대학 각학년 수석학생 4명으로 종단추천장학생에게는 학기당 10만원씩, 법과는 수석장학생에게는 학기당 20만원씩 학비보조금형식으로 지급한다.

「동국가든」보수

「동국가든」의 전체보수작업이 지난달30일 모두 끝났다.

총공사비 5백만원을 투입한 이번공사에서는 바닥에 물이 새지않는 고급타일을 비롯, 주방 칸막이설치, 천정 습기제거를 위한 석고보드를 시설하는등 새단장을 완료했다.

한편, 지난4일 개장예정이었던 동국가든은 학생복지위원회에서 학교측과 업주와의 임대계약에 이의를 제기한는등 논란이 일어 개장이 지연되고 있다.

방송국·교편등 수습국원및 위원모집

교육방송국(D·U·B·S)과 교지편집위원회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습국원 및 위원을 모집하고있다.

방송국과 교·편의 원서 교부및 접수는 각각 오는 6일 오후2시와 12일 오후3시까지 방송국과 편집실에서 받으며, 시험은 방송국이 오는6일 오후5시에, 교편은 오는12일 오후5시반 학림관(T201)에서 각각 치른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방송국과 교·편에 하면 된다.

자연대 간담회

단대발전 주제로 열려

자연과학대 교수·학생간 부간담회가 지난달 31일 오후5시 교수회의실에서 열려 자연대건물확보와 교수충원, 체육대회행사 문제등 총3개항을 주안건으로 약 2시간동안 토론을 벌였다.

이자리에서 학교측은 우선 자연대 건물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수충원 문제는 현 자연과학대 법정교수확보율 46%를 89학년도에 능력있는 교수로 다수 충원하겠다고 답변했다.

회칙개정 작업 활발

慶州 총학및 써연등서

경주캠퍼스 총학생회 회칙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강진수·법4)는 회칙개정안을 지난달31일 총대의원회에 상정했다.

이번 회칙개정은 문교5원칙의 폐지로 총학생회의 완전한 자치활동의 보장과 문교당국및 학교당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회칙을 개정하여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학생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가운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발의, 대의원회에 상정했다.

한편써클연합회「회칙개정시안」이 지난달 31일오후 4시 옥야실에서 써클대표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시안은 본교의 건학이념을 토대로 대학의 진리탐구와 자율적, 창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써클활동에 있어 자율성을 제외한 도서실·정기간행물 등을 두고 있는데 써·연회장 심용대(문예4)君의 개정시안 발의로 총 29개등 특써클중 22개써클대표가 참석, 찬성 18명으로 통과되었다.

수험전문자료실 설치

慶州 취업대책 일환으로

경주캠퍼스 취업정보와 각종 취업관련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될 「수험전문자료실」이 이달 말경 설치되며 이보다앞서 금명간 학생과에취업담당계주임1명이 부임할 예정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수험전문자료실에는 1천여권의 각종 취업전문서적및 홍보지가 비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서관의 한편계자는 수험전문자료실 설치안건은 지난달17일 3처장과 학생회간부간에 사항으로 합의된 취업정보및 취업관계서적확보에 다소 도움을 줄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神興장학회」서 불교·법대생 대상

慶州 LAB실개관

경주캠퍼스 원효관 2층 비데오교실이 지난달 31일 Lab C실로 개칭되었다.

이번에 개칭된 어학실습실은 종전의 Lab A·B실과 함께 학생들의 어학실습을 위해 효과적인 외국어 사업비 총 6백80여만원을 들여 카세트테이프, T·V VTR등의 기자재를 갖추고 매주 월요일~금요일까지 개방되고 있다.

21년의 결론。

멋부리지 않은듯이 멋부리는 정통 방식,
캠브리지 멤버스가 제안하는 젊은 옷문화 – 엑스게이트.

X·GATE
FOR MEN

CAMBRIDGE MEMBERS

The FORMAL CAMBRIDGE MEMBERS X·GATE FOR MEN

엑스게이트는 캠브리지 멤버스가 얻은 21년 결론의
브리티쉬 클래식 스타일을 뼈대로, 개성을 중요시하는 분들을 위해
시대적 감성을 조화있게 살로 더한 남자옷의 젊은 문화입니다.

울 마크는 세계공통의 품질증명표시, 케이에스 마크와 큐 마크는 각각 공업진흥청과 한국의류 시험검사소가 인정하는 우수제품표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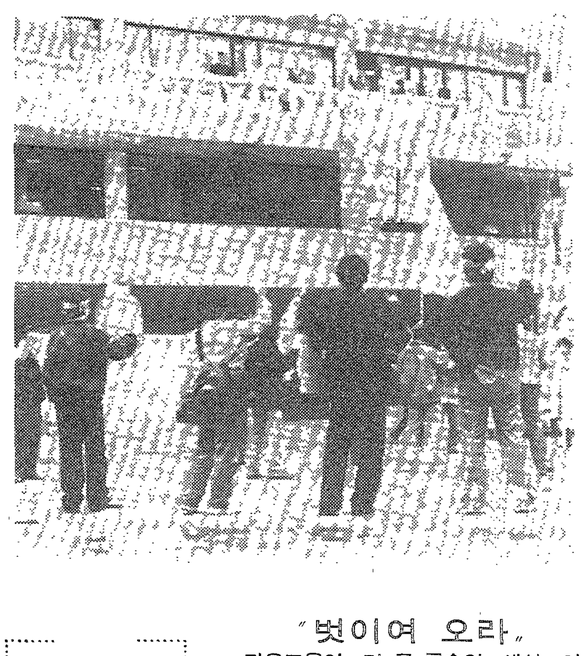
결론 하나. 옷의 문화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정당당한 문화질서가 요구되고 있읍니다.
또 그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옷차림에도 새롭고 의연한 문화가 요구되고 있읍니다. 저희는 그 대안이 '브리티쉬 클래식 옷문화'라 결론 지었읍니다.
지금, 우리들이 입고 있는 양복의 근원이며 수백년에 걸쳐서 페어플레이의 젠틀맨쉽으로 세계 모든 남자들의 정신적 잣대가 되어온 브리티쉬 클래식 문화 – 그 정정당당한 정신속에 꽃핀 옷차림의 문화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맞게 재정립하여 새롭게 제안합니다.

결론 둘. 옷의 질(質)
'질기고 튼튼한것이 좋은 품질의 옷이다.' 라고 여겨지던때는 이미 갔읍니다.
이제 그런것쯤은 옷의 기본에 불과할뿐 더 중요한 품질의 요소는 오히려 따로 있읍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브리티쉬 클래식 스타일의 옷 하나하나에는 그것만의 의미있는 품질이 스며들어 있읍니다. 각각의 품목을 이루는 스타일, 소재, 색상, 무늬등의 모든 것들이 오랜 세월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 '이것이 최선'이라고 결론 지어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티쉬 클래식 스타일을 즐기는 세계의 남자들은 누구나, 그 기능적인 완벽한 품질을 뛰어넘은 정신의 품질 – 각부분마다 역사가 스며들어있는 절대적인 멋과 함께 한다는 만족을 느낍니다. 수백년 동안 고집 되어온 그 의연한 품질의 세계를 새롭게 제안합니다.

결론 셋. 옷의 합리적 조화
있어도 못입는 옷은 혹 없으십니까?
저희가 제안하는 브리티쉬 클래식 스타일에는 옷차림에 대한 고민 모두를 함께 해결할 완벽한 체계가 이미 갖추어져 있읍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전통에 의한 결론 – 계절마다의 옷의 구성, 저고리와 바지는 물론 셔츠, 양말등의 모든 연관상품들과 그 조화방법까지 제시된 합리적인 체계를 몇벌 안되는 옷으로도 멋부리지 않은듯이 멋부릴 수 있는 정통 방식으로, 바로 브리티쉬 클래식 스타일의 옷의 문화로, 새롭게 제안합니다.

(주)캠브리지-삼풍·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61-15 캠브리지빌딩 우편번호 137-070·전화(02)586-0303

※엑스게이트 매장안내 □롯데쇼핑센터4층·771-25(교)3441 □뉴코아백화점매장은 3월말에,명동 중앙로매장은 4월에 문을 엽니다
※신용판매과 명동대한빌딩1003호·777-1903~4, 779-0790, 756-2491



카메라 댓상

"벗이여 오라"

자유로움이 더 큰 구속인 세상。이 암울한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그대 오라。그리고 우리함께 신새벽 등터오는 대지로 가자。새 생명의 기운이 용솟음치는 곳으로。

<글=정성기記者·사진=류춘록記者>

회전무대

광주항쟁「유감」云云…강자의 논리로 밖에

한국식 역설의 논리

○…실컷 때리고는 맞은 사람보고 유감이었으니 화해나 하자는 식은 5·18광주사태를 왜곡시키지 않을까 두려운데…。

그것은 80년 5월의 광주민중항쟁의 치유를 위한 정부의 발표문이 진상규명이나 책임소재를 밝히기보다는 「아픈상처를 다시 건드린다」는 변명(?)으로 마무리지으려 한다는것。

정당한 요구를 하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게 「본의(?)가 아닌 일로 유감이었으니 없던 일로하자」식의정부의 발상은 죽음병 걸린 사람에게 감기약주고 생색내는 거와 다를바 없는 것으로 한국적 강자의 역설 논리에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요。

다양한 광고전달시대(?)

○…복잡하고 다양한 산업사회에 발맞춰 국내 일간지들이 지난 1일자로 16面으로 증면됐는데。

그러나 늘어난것까지는 좋았는데 1面부터 진지하게(?) 넘기다 보면 그저그런 記事와 현란하고도 넓은 페이스를 차지하고 있는 광고(?)와의 대비효과만 더해진것 같다는 評。

「언론이 언제부턴가 「제도언니지 식의 절루사가 붙게 되었는지 부터 잊지 마시고 언론 좋사자들이 앞장서서 진정으로 민중을 위한 민주자유언론을 실천하심이 순서일것 같읍니다。

주인의식은 어디로

○…東亞에 불향기가 가득한 가운데 탈많고 말많던 총학선거가 슬그머니 막을 내렸는데 투표율은 재선의 위기(?)를 간신히 넘긴 52·3%였다고。

특히, 대부분의 학생은 유세 한번 제대로 들어보지 않아 「강건너 불구경」이라는 말이 문득 생각나게 하는데…。

신학기를 맞아 제철만난 동문회 미팅등에 바쁜신것도 좋지만 本 희전부대子 『東國인 여러분, 주인의식속에서만이 참 주인(?) 행세를 할수있지 않을까요』

도서 사수 비상령 이라도

○…경주캠퍼스 도서관에선 「도서사수 비상경계근무」 기간이라도 설정해야겠다는 논의가 說往說來。

「도서사수 비상경계근무」의 당위성(?)의 사연인즉 일반열람실을 제외한 도서실·정기간행물실·참고열람실 등에 비치된 책에서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을 과감하게 찢어가는 용기있는(?)학형들이 부쩍 늘고있다고。

이에 某학형 「본뎡문만 들이면 복사해갈수 있는것을 슬쩍 찢어간 심보는 염연한 절도행위」라며 「바늘도둑 소도둑된다」는 속담도 있지만 제2의 소巢씨가 될 수있는 자질이 엿보인다」고 혀를차기도…

慶州 LAB실개관

경주캠퍼스 원효관 2층 비데오교실이 지난달 31일 Lab C실로 개칭되었다.

이번에 개칭된 어학실습실은 종전의 Lab A·B실과 함께 학생들의 어학실습을 위해 효과적인 외국어 사업비 총 6백80여만원을 들여 카세트테이프, T·V VTR등의 기자재를 갖추고 매주 월요일~금요일까지 개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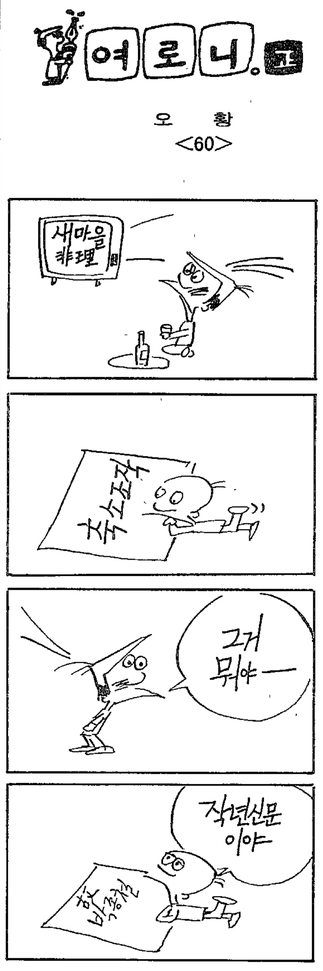
수험전문자료실 설치

慶州 취업대책 일환으로

경주캠퍼스 취업정보와 각종 취업관련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될 「수험전문자료실」이 이달 말경 설치되며 이보다앞서 금명간 학생과에취업담당계주임1명이 부임할 예정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수험전문자료실에는 1천여권의 각종 취업전문서적및 홍보지가 비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서관의 한편계자는 수험전문자료실 설치안건은 지난달17일 3처장과 학생회간부간에 사항으로 합의된 취업정보및 취업관계서적확보에 다소 도움을 줄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석기자〉



어둠의 불꽃

김정매 著

本校 英文科교수인 김정매교수가로렌스문학연구에 관한 이론서인「어둠의 불꽃」을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냈다。영국작가中에서 세익스피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로렌스의 문학과 예술을 총13장에 걸쳐 다루고 있는 이책을 통해 著者는 로렌스의 詩, 정치소설및「무지개」,「아들과연인」등의 대표적 소설과 그의 문학 속에 드러나는 여성상및 그에대한 비평의 역사적조감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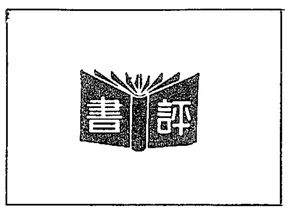
<문학과 지성사刊·365面·4천5백원>

황석영作 "무기의 그늘"

월남전을 보는 새로운 시각

황석영의「무기와 그늘」이 어렵게 연재를 마치고 단행본으로 간행 되었다。이 작품은 월남전을 정면으로 다룬 본격 장편이다。

이작품은 월남전의 의미를 세계사적 맥락에서 심도 있게 천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월남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 설정



을 시도하고 있다。

작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이 작품은 월남전을 백인이 아닌「아시아 사람의 시각」에서 다시보고, 추상적인 휴머니즘이나 특파원적 시각에서 벗어나「고통 받는 자의 입장」에서 보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의도는 먼저, 미군을 포함한 월남 참전 연합군이 이른바 자유의 십자군이 아니라, 월남 민족을 괴롭혀 온 외세의 또 다른 형태이며, 월남민족에 대한 가해자일뿐이라는 작중상황의 설정에서 드러난다。그 구체가 합동수사대 한국군 파견대의 일원인 안영규의 보고서를 통해서 제시 되는 상황이다。그것은 모두 미군이 원주민에게 저지른 죄악으로, 민간인 부녀자 강간 살해 사건, 밀라이 마을에서의 아녀자 살해 사건, 죄수 캠프에서 자행된 잔혹행위 등인데, 월남전에서 보게되는 이러한 무자비한 살육과 증오는 힘있는 자가 약자에게 휘두르는 부당한 폭력일 뿐,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되거나 합리화 될 수 없는 일임을 작가는 역설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작중의 중요 인물인 팜 민의 작중활동을 통하여 월남전을 보는 작가의 시각이 드러난다。

팜 민은 후에 대학 의예과 학생이며 베트남 정부군의 소령으로서 성청의 모든 이권을 관장하고 있는 막강한 실력자 팜 꾸엔의 동생이다。그는 형의 권세에 빌붙어 병역을 면제 받을 수도 있고 국외로 도피하여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도 있는 말하자면 유복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민족해방전선에 입대하여 보조 공작원으로 활약한다。그는 월남전을 불란서 식민지 시대의 반식민 투쟁의 연장으로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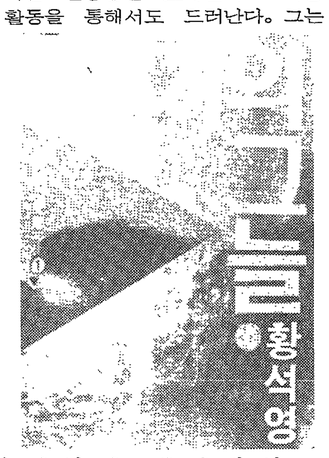
따라서 그의 민족해방전선 입대는 민족운동에의 투신일 뿐이며 이데올로기는 부차적인 것이 된다。

…저는 물론 적과 싸우겠읍니다。그러나 지금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자로서 해방전선에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저는 뒤에 평화가 온다면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살아갈 것입니다。저는 해방전선의 전사로서 민족적 소망이 달성되는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스스로 투신했읍니다만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닙니다…。

이것은 팜 민이 훈련과정에서 행한 자기비판이다。이러한 팜 민의 의식에 월남전은 월남민족이 식민주의자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민족적 항쟁이며, 참전 연합군은 월남의 민족적 해방을 저해하는 집단으로서 항쟁의 대상일 뿐이다。

팜 민에게서 보게 되는 월남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당시 월남의 젊은 지식층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작가는 보고 있다。팜 민이 도시에서의 공작원활동을 위장하기 위하여 짐짓 민족해방전선에서 탈영한 것처럼 행동하는데, 이런 팜 민의 행위를 그의 누이나 애인이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데서 이런 분위기는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월남전에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미군 탈영병인 스태플리의 작중활동을 통해서도 드러난다。그는



"월남전의 의미를 세계사적 맥락에서 천착하고 있으며「아시아사람의 시각」에서 재조명하고있다"

뚜렌 보급창의 수석 보급병으로 처음에는 징집을 거부했으나 검거되는 바람에 어쩔수없이 입대하여 월남에서 근무케 된다。그는 월남에서 헬리콥터의 사수노릇을 하는동안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고, 개인적으로 월남전을 거부하여 탈영병이 된다。그에의하면, 미국정부는 베트남을위한다거나 통일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얼빠진 감상주의라고 여기며, 자본가들은 그들의 기업방침에 따라서 월남에서 물러나지않으려고 안간힘한다는 것이다。

이 작품의 골격은 주인공격인 안영규의 합동수사대 근무 전말이 중심이 된다。그는 시장 조사원이기 때문에 작중상황은 자연스럽게 군사물자의 유통과정과 깊이 관련 된다。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는 전쟁경기에 몰려드는 각종 유형의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의 작중활동을 통해서 월남전의 또 다른 일면이 드러난다。

팜 민의 형이자 정부군의 소령인 팜 꾸엔의 부정과 치부행각은 월남전의 한 국면을 밝혀주는 매우 티피컬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특히 전략촌 계획과 관련하여 저지르는 구조적인 부정행각과 계피 채취를 위해서 벌이는 엉뚱한 군사작전의 시말은 그 부도덕성과 관련하여 매우 인상적이다。

또 한국여인 미미, 중국계여인 마담 린, 그리고 구엔 쿠옹 형제가 이권을 둘러싸고 벌이는 작중활동은 월남전의 월남전다운 성격의 한 면을 부각해내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그러나 이작품은 몇가지 면에서 한계를 보이고있다。 그것은 작중인물의 형상화와 관련되는데 우선 주인공격인 안영규의 경우가 그러하다。그의경우 작중에서 월남전의 중요한 국면을 전형적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인물로 선정되었는데 겉으로드러나는 행동에 치우쳐 정작 건져내야할 내면적인 요소가 미흡하다。

월남전에 참전한 한국인으로서의 고뇌가 그의 작중액션에 육화되지 못하고 그것이 공소한 관념으로 나열 되어버리고 만것같다。이런 지적은 작중 인물 가운데 팜 민을 제외한 모두를무고, 해도 큰 잘못이 없을 것 같다。그리고 이것은 이작품이 소재가 지니는 기본적인 제약을 가능한 데까지 극복하여, 월남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정립을 시도하는등 문제제기에는 성공하고있으면서도 문학성이 이를 따르지 못하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것 같다。

작년에 나온 李相文의「黃色人」과 李元揆의「훈장과 굴레」는 월남전을 다룬 장편으로서 주목된 바 있다。이 작품들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문제성에 비하여 문학성이 뒤진다는 것으로 귀결되었는데「무기의 그늘」의 경우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도 잘못이 없을 것 같다。

李 來 秀

<인문과학대교수·현대문학>

社告

제26회 高校生 文學콩쿠르 작품모집

本社에서는 全國의 남·녀고교문학도들을 대상으로 창작의욕을 고양하고 나아가서는 미래의 한국문학을 주도해 나갈 文才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26회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를 개최합니다。매년 문학도를 발굴해온 가장 권위있는 이 향연에 많이 참가하여영광을 누리기 바랍니다。

◇작품모집 종목

▲詩·時調……3~5편 이내
▲小 說……200자원고지 50매내외
▲수 필…… 〃 15매이내

◇응모자격

고교생의 작품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작품

◇시 상

▲각 종목별로 壯元1편, 우수작2편, 가작2~3편을 뽑아 상장및 부상을 수여함
▲1차예선 원고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도 상장을 수여함

◇입상자특전

▲각 종목별 장원입상자(1등)가 본교 어문계열에 입학한 경우 당해 학년도 1년간 등록금 전액을 면제함
▲각 종목별 우수작 입상자(2등)가 본교에 입학할경우 당해학년도 1년간 수업료반액을 면제함
▲재학중 문단에 등단하거나 문예성적이 우수한 자는 총장장학금, 문예장학금등을 받을 수 있음。

◇작품제출기간

1988년4월21일~4월30일

東大新聞社

메아리

▲항간 재미있는 이야기한 토막이 돌고 있다。내용인 즉, 어떤 두사람이 길을 가고있었다。A라는 사람이 난데없이 B라는 사람의 뺨을 후려쳤다。B라는 사람은 항의를 하며 A에게 따졌다。A는 처음에는 B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떠들어 댔다。그리고는며칠이 지나서 A는 B에게 먼저의 불상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심히「遺憾」이라고 밝히고 서로의 우의를 생각해서 덮어두자고 했다는 내용이다。▲80년 5·17조치로 발단이 되어 수백명의 사망자와 수천명의 사상자를 만들어냈던「광주민주항쟁」은 제5공화국을 가장 괴롭혔던 골치거리였으며 결코 풀지못한 멍에였다。또한 제5공화국을 그대로 연장한現정부는 더이상 광주문제를 덮어만 둘수없다고 판단했음인지 출범에 앞서「民·和·委」라는 기구를 두고 이문제에대해 언급을 하게 하였다。그러더니 지난1일 정부발표를 통해「광주민주항쟁」의 성격을「광주학생과 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지금까지와는 약간다르게 규정하고 이같은 불상사가 발생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아픔을겪게 된데대해 참으로「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위령탑건립등 치유책을 몇가지 밝혔다。이에대해 유족 부상자 구

遺憾과 謝過

속자등 피해당사자들은 한결같이『진상규명이 선행되지 않은 치유방안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같이 광주문제의 해결을 정부에서 하겠다는 것에대해 당사자나 국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왜냐하면 현정부는 前정권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할 자격이 없다는 인식에서 기인하는 듯하다。가해자가 일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감정만 상하게 하기때문이다。결코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하면서 말이다。그러다보니 사건의 진상규명은 은폐된채 더구나 관계자처벌은 엄두도 못내면서 무조건 위령탑이나 세우고 보상금 몇푼 지급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유감」이라는표현이다。「유감」을 이희승 국어사전을 보면,「마음에 섭섭함」또는「딱딱하여 언짢음」으로 되어있다。이와 같이 이말은 책임이 자신에게 없으며 단지 섭섭하다는 표현인 것이다。결코「謝過」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현정부가 문제해결의 자격이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해결을 진정 원한다면 정식으로「謝過」를하고 진상조사와 아울러 책임자를 단호히 문책할 때 가능할 것이며 그 이후에라야 국민화합이란 말이 먹혀들지 않을까。<煥>

인터넷

신임 총·여총 학생회장과 함께…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앞서며 교내에 산재한 비민주적 요소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읍니다』라며 소감을 밝히는 제20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최재성(불교학4)君。

최재성 신임총학생회장

「나, 너의 벗 되리니 우리 함께 만들자 민주총학, 해방조국을!」이란 슬로건이 제시하듯 학우들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의무를 주지시키고 실천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강조한다。

「대동단결」을 이루고자 험로를 거친 것은 최君의 눈빛에서도 충분히 느낄수 있었으며 부총학생회장의 3차유세시 후보 사퇴발언을「단결을 위한 아픔」으로 치부해도 될만큼 지금껏 숱한 어려움을 겪기도한 이들은『대의적 차원에서는 상이한 점이 많지만 내부의 갈등은 큰 무리없이 끌어나갈수 있을 것이며 대중의 기반이 전제되어야 힘있는 총학도 건설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읍니다』라고 견해를 밝힌다。

"단결을 통해 학내의 비민주 타파에 앞장서겠읍니다"

「가까이에서 느낄수있는 총학생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는 최君은 각단대별로 학내 민주화 추진기구를 마련하겠다고한다。학복위, 예협등을 흡수하고 동발추의 발족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약속한다。

『19代총학의 무능, 선진적투쟁원리만을 강요한 보궐총학, 대안이 마련되지 못했고 자기와해의 절차를 거친 비상총학의 한계점은 극복되어야 합니다』라는 崔君의 말속에서 20代총학의 像이 비쳐지기도한다。

또한『논란이 되고 있는 분열의 모습속에서 이탈, 단결의 관점만은 이루어 내야 합니다。또한 주체가 되어 이끌어 가는 학우들의 노력이 절실합니다』라고 역설。

52.3%의 투표율에 60.7%의 지지율이 보여주듯 저조한 학생들의 참여의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문제점과 계속 지적될 분열의 조짐을 어떻게 해결해 낼 것인가가 앞으로 총학이 걸머져야 할 과제이며 또한 二重苦이기도하다。

그러나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비유기적인 결합을 깨치고…。<逸>

지난 29·30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된 제4대 총여학생회장 선거에서 87.2%의 지지율로 여총회장에 당선된 신미숙(일문4)양。

『우선 긴장이 됩니다。2천4

신미숙 신임여총회장

백 여학우의 대표가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며 능력이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할것입니다』라며 짤막하게 당선소감을 밝힌다。

신양은 총여학생회가 구성된 배경에 대해『총학만으로서는 여학우들의 이해와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말하고 그러나 그동안 여총이 활성화되지 못한것은 서로의 개인주의적 무관심이 큰 장애요소로 존재했었다면서『여총의 집행부내에서도 지식주의적 한계에 빠져 제대로 문제인식을 하지못하고 행사위주의 활동에만 너무 치우쳤다』고 분석한다。

이와 아울러『제4대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의 문화공간마련에 힘쓰는 한편 복지·환경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여 학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하나되는 총여학생회」를 만들겠다』고 소신을 밝힌다。

또한 유세과정에서도 여러차례 언급이되었던 올바른 여성관 정립에 대해『계급이나 性의 억압에서 탈피하는 길은 여성스스로가 문제의 심층부를 꿰뚫는 안목을 기르고, 모든 문제해결의 주체임을 자각하는 길뿐』이라고 말하고『동국의 여학생들은 종속적인 억압의 굴레에서 탈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여학우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는 여총으로 이끌터"

항상 믿음, 정의,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강조해왔다는 신양은『남이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라는 자세를 버리고 이제는 주위에 대한관심을 표시 해야 할 때』임을 역설하며 단합된 의지로 진실을 향해나아가자고 말하기도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서공약으로 내세웠던「여학생 후생복지 개선」「여학생주간 마련」「남녀공동체의식 함양」「여성문제·연구소설치」등을 반드시 실천할것을 다짐하며 두달에 한번 정도 소식지를 발간하여 학생들에게 여총의 활동상황을알리겠다고 말하고 아울러 학생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줄것을 당부한다。<愛>

두산그룹에서 즐겁게 일합니다①

4월 3일
마흔 세 명의 사원이
해외 연수에 나섰읍니다.

斗山人은 世界人!
국제감각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두산그룹은 남다르게 투자합니다.

세계가 더욱 가까와지고 있읍니다.
세계시장이 더 넓게 열리고 있읍니다.
바야흐로 이제는 더 크게 더 멀리 내다보는
이른바 국제감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사업영역을 넓혀나가는 두산그룹은
국제감각을 지닌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읍니다.
그 하나가 바로 매년 이맘때면 시행되는
사원들의 해외연수입니다.

금년에도 마흔 세명의 사원들에게 일본, 대만, 홍콩 등
동남아 일대를 두루 돌아볼 기회가 주어졌읍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체득한 산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맡은 분야의 일을 국제적인 안목으로 추진하면서
두산그룹을 세계속의 기업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인화를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斗山그룹

●두산산업 ●동양맥주 ●동산토건 ●두산식품 ●두산기계 ●두산유리 ●두산농산 ●오리콤 ●두산컴퓨터 ●두산유업 ●두산전자 ●두산곡산 ●두산제관 ●오비씨그램 ●동아출판사 ●백화양조·베리나인 ●오비베어스 ●연강학술재단